

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예술

# 예술 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 2013. 12

##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2013년 12월 인쇄

2013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전화 02-760-4500, 600

팩스 02-760-4707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 목차

---

## I. 연구배경

- 1. 연구배경과 목적 ..... 3
- 2. 예술과 예술적 표현 ..... 7
- 3. 예술과 인성 ..... 8

## II. 예술치유의 개념과 현황

- 1. 예술치유의 개념적 위치 ..... 1
- 2. 예술치유와 예술치료, 예술교육의 관계 ..... 4
- 3. 예술치유 분류체계 ..... 71

## III. 예술치유관련 실태조사 결과

- 1. 예술치유 관련 단체 현황 ..... 20
- 2. 예술치유 관련 자격증 현황 ..... 54
- 3. 예술치유 관련 교과과정 현황 ..... 47

## IV. 예술치유 분야 전문가 조사

- 1. 전문가 인터뷰 ..... 3
- 2. 전문가 설문조사 ..... 77

## V. 종합 및 정책적 제언

- 1. 정책적 방향 제언 배경 ..... 98
- 2. 예술치유 관련 해외 연구 및 정책 흐름 ..... 98
- 3. 해외 우수사례 분석 ..... 9
- 4. 정책적 제언 ..... 16

## 참고문헌

---

# I. 연구배경

## 1.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눈부시게 빠른 성장을 보이는 반면 출산율 최저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K-POP을 비롯하여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은 우리를 암울하게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43명이 자살하는데, 이 중에서 노인의 자살률이 제일 심각하며 청소년층 역시 계속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2012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에서는 “불안, 트렌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이후 5년을 관측한다. 불안의 트렌드 현상은 힐링으로 이어지며, 이는 또한 예술치료의 대중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예술치료는 서양보다 4, 50년 늦게 시작되었다. 1980년대 미술치료를 선두로, 1990년대에는 음악치료가, 이와 함께 놀이치료와 무용치료가 시작되었고, 최근 들어 연극치료가 가장 늦게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늦은 출발과 달리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한국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힐링은 앞으로 산업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며, 예술치료 역시 그 미래와 전망이 매우 밝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이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래지 않아 사상누각이 되고 말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치료는 빠른 시간동안 급성장한 만큼 그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healing과 therapy라는 용어의 구별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예술 치료는 후자보다는 전자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healing은 감성적인 부분과 자가 치유력의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반면, therapy는 의료적 치료(medical treatment)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처치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예술치료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술의 본질에 있는 감상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활용한 구체적인 처치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랜디가 자신의 예술치료 개론서 맨 첫 머리에 “예술치료란 과연 무엇일까? 과학인가 아니면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치료는 과학이다. 그런데 이 둘의 종합인 예술치료는 구태여 그 영역을 구분하자면 과학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이다. 이는 다시 말해 느낌이나 감정을 통한 예술 작업을 객관적인 평가로 검증하는 과학적인 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예술치료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인 동시에 앞

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최근에 오면서 예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예술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치유케 하는 것이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춤·동작 치료(무용치료), 놀이 치료, 심리 치료, 연극 치료, 원예 치료, 웃음 치료, 보석 치료, 풍수 치료, 작업 치료, 명상요가 치료, 독서 치료, 시 치료, 글쓰기 치료, 이야기 치료, 드라마 치료, 영화 치료, 문학 치료 등 다양한 치료학이 등장하고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치료란 치료사가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심신적으로 치유되는 것에 가깝다.

한국의 예술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작하였지만 질적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한국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국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정, 민간요법을 비롯한 여러 대체의학의 자생적인 발전, 앞선 여러 장르에서의 동시적인 예술치료들의 영역 확장,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예술 교육의 권장 등이다. 또한 협회 설립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에 소속된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율적인 정책의 결과 각 예술치료에 관련된 여러 협회들이 결성되었고, 그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예술치료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접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치료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의료기관에 속한 하위 치료 영역이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치료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로부터 민간요법이 성행하였다는 전통적 관습과도 관련된다. 일찍이 의사의 진단 처방 없이 침술, 찧뜸, 마사지, 기 훈련 등과 같은 치료요법이 대중적으로 행해지는 사회문화적 풍토가 예술치료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병원에서 예술치료를 별개로 운영하기도 한다. 예술치료가 짧은 역사에 비해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룬 데에는 이와 같은 환경적 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 하나의 특성으로 예술인 공동체에서 그 필요성과 수요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 또한 한국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즉 최근 예술인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로 예술교육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연극을 통한 사회적 환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술의 치료적 효과가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지원은 평생교육원의 활성화와도 연계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예술치료사 양성과정은 여기에 개설되어 있다.

모든 예술치료가 그러하듯이 연극치료 역시 서구의 경향을 그대로 흡수한다. 특히 196,70년

무렵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미국과 영국의 예술치료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예술치료 방법론이 형성되었고, 계속 수정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술치료의 실제 작업과 이론의 양면에서 교과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치료는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독자적인 한 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그 이유는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와 의존도가 아직도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단 평가에서부터 작업 종료에 이르기까지 질적 양적 연구 결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예술치료가 잘 정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한 영·미의 예술치료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문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관련 학문에 대한 연계성도 계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심리학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미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융의 분석심리학과 같은 고전 심리학은 예술치료에서도 그 바탕이 되고, 실존주의 철학과 심리학은 실존주의 예술치료라는 새로운 분야를 형성하였다. 또한 사이코드라마와 게슈탈트 치료는 연극치료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대상관계 이론은 환자의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 문학 역시 예술치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데, 특히 6 조각 이야기와 같이 환자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진단평가에 많이 사용된다.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적 체험을 강조하는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업 목표는 입시 교육에 치중된 교육 현실에서 자리를 잃어가는 예술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을 전공한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전국의 문화기반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예술치료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예술교육과 예술치료를 통합하여 치유와 성장을 위한 체험형 예술교육을 확장하겠다는 해당청의 의지는 예술치료가 예술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없고, 치료사들을 특정 전문인으로서 예술강사들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예술치료 전문가들의 주장 때문에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치유적 예술교육과 예술치료를 구분하여 전자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그 사업은 ‘예술강사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예술치료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무부 등의 주요 사업 기관들에 투입되어 심리치료의 새로운 형태로 국가사업을 보조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부터는 예술치료가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던 중에 학교 폭력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9월 4일 대한민국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지식위주이기만 했던 학교 교육을 사회성, 감성, 도덕성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 인성교육 비전 수립 정책연구팀에는 예술교육자들 뿐 아니라 예술치료전문가들도 포함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아동·가족 공공서비스에는 이미 예술치료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 교육이란 틀 안에서 다시 예술교육과 예술치료가 만나 정책 수립 및 실천을 함께 추진해나가게 된 것이다.

여러 관점에서 예술교육에 인성교육과 치유라는 새로운 기대를 걸게 되자 그동안 예술의 치유성(art as therapy)을 토대로 활동을 해오던 예술치료사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학교 교과과정 안에서 활동하는 예술교사와 정신병원이나 복지관 혹은 상담센터 등에서 일을 하는 예술치료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위에 언급된 공공지원서비스 사업 내에서는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고 서로 부딪는 일도 종종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예술치료 전문가들이 선호하며 썼던 ‘치유’란 단어이다. 예술치료 전문가들은 이제 치유와 치료를 분명히 구분하려고 노력하며 ‘치유’는 자생적인 과정이자 결과인 반면 ‘치료’는 제 3자 즉 해당 전문가의 임상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술의 치유성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반인 누구나와 그릴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줄 수 있는 예술교육가에게도 열려 있지만, 치료는 예술을 활용하건 아니건 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심리치료 전문가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이 경우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치유로서의 예술(arts as therapy)’과 ‘심리치료를 위한 예술(arts for psychotherapy)’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치유적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의 관계 설정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두 개념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가 예술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좌우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심리치료의 깊이를 다루는 예술치료 이론과 훈련법을 갖추지 못하여 졸업 후 사업 현장으로 나온 예술치료사들이 예술강사들과 구별되는 사업 내용 및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원금의 효율성 때문에 수혜자의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집단치료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원사업들에서는 예술치료가 예술강사의 활동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모습과 성과를 보인다. 예술치료 학도들이 집단치료 전문가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요구되는 자질들을 키우지 못한 채 예술치료 일반에 대한 교육만 받고 졸업해서 사업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물론 지원사업 수행기관들이 예술치료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예술치료의 성과 미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 2. 예술과 예술적 표현

예술은 사회적·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며 예술은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된 산물이다. 예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예술적 표현은 인간의 역사와 삶을 대변하고 있다. 인간은 아름다운 새소리, 어여쁜 꽃, 푸르고 아름다운 산과 들, 나무, 춤추는 나비 떼와 함께 자연의 풍경을 즐기면서 미를 동경하고 사모하며 살아왔다. 미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인간육구의 본능이며 인간의 본질이다. 예술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예술이 발생하고 존재한다면 예술은 인간 삶의 철학과 결부된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로서의 예술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함과 함께 존재해 왔으며,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혼란한 사회에서 예술적 표현은 인간 삶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술의 발생동기를 인간의 유희본능, 종교의식, 노동과 생산활동 및 모방본능이라고 할 때 삶의 의미를 제시해 주는 예술은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의 예술적 표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생활에서 예술적 표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예술적 표현의 가치는 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에게 뿐 아니라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 예술을 평가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술적 표현의 가치는 예술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예술의 기능, 예술의 본질, 평가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술적 표현의 가치와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미학(aesthetics)은 그리스어 감각(aisthesis)에서 유래하였으며, 18세기 독일의 바움가르텐(A.G. Baumgarten)이 최초로 학문으로 정립하였다. 바움가르텐에 의하면, 미학은 감성적인 인식의 학문으로서 감성지(感性知)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즉 인간은 예술적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그의 인간성과 감수성 그리고 도덕성과 그의 삶의 철학과 지성에까지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예술적 표현은 인간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정서를 계발하고 전인적인 인간형성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닌다. 고대 그리스에서 심신이 조화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학교의 교과목으로 시작되었던 예술교육은 가치관의 혼란과 인간성 상실의 시대로 표현되는 현대에 와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한 나머지 겨우 예술교과목의 이름만 유지하고 있을 뿐, 실제로 있어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쇠퇴되는 실정이다. 인간형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던 고대 그리스의 교과목이었던 7 자유교과(seven liberal arts)에 음악교과목이 포함된 것은 음악예술 교과목이 인간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예술교육이 지니고 있는 인간형성적 가치를 소홀히 하여 학교교육에서 예술교과목이 쇠퇴하면 할수록 학교에서의 교권은 퇴보하고 인간교육은 그 가치를 상실해 갈 것이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교권침해 등 청소년의 문제를 치료하고 정신적 안정 및 교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는 청소년들이 예술적 활동과 예술적 표현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여 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확대해야 한다.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술적 표현은 그의 인간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3. 예술과 인성

예술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과 관련되어 있다.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 삶이 존재하는 어떤 장소에든지 그 당시에 인간이 향유했던 예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술작품은 인간이 살았던 삶의 흔적이며 삶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은 인간영혼을 담은 그릇이며, 인간의 삶을 지탱시켜 주던 힘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 풍요해질수록 예술의 힘은 더욱 가까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된다.

현대인은 ‘문화의 바다’이며 ‘문화의 우주’인 인터넷 속에서 영화, 연극, 음악, 종교, 교육, 미술, 건축, 음악 등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간다. 인간은 예술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인간형성에 유익한 문화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은 상업주의적 경쟁 속에서 빠른 속도로 상품화되었다. ‘문화의 바다’는 끝이 없이 넓으며 ‘세상의 모든 음악’ 또한 끝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본질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과의 관계는 예술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해석도 어떤 예술이론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간 삶에 미치는 예술의 영향과 예술작품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예술작품과 감상자의 관계, 예술작품과 그것이 재현하는 세계와의 관계, 예술작품과 그것을 제작한 개별 예술가와의 관계, 예술작품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되는 문화, 특히 예술세계를 포함한 문화와 예술작품과의 관계 등이다. 이 네 가지의 구분은 미학의 기본이론에 따라 네 가지의 각각 다른 측면에서 예술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미학의 기본이론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이론은 예술작품과 감상자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감상자는 원래의 감상자, 곧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자 의도했던 당시대와 문화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현재의 감상자, 곧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감상되어 내려오는 예술작품은, 대상이 당시대의 사람이거나 지금 우리 시대의 감상자이거나 별 다름없이 널리 감상되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감상자를 의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의 질이 서로 다르게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현이론은 예술작품이 재현하는 세계가 실재이거나 허구이거나 간에 예술작품과 그것이 재현하는 세계와의 관계이다. 표현주의적이고 의도주의적인 이론들은 예술작품과 개별 예술가들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즉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의도하는 세계를 자신만의 주관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제도주의적 이론은 예술작품과 예술세계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이는 감상자와의 관계를 의도하지 않고,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작품 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예술가 자신의 정신적인 예술적 질을 의미하는데 감상자의 감정 예술가의 의도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넷째, 형식주의 이론은 구성요소와 형식 상호간의 내적관계를 중시한다. 예술작품의 구성요소와 관련이론 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외적인 형식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그 예술작품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되는 문화, 특히 예술세계를 포함한 문화와 예술작품과의 형식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현대의 예술세계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네 가지의 분류는 각각의 이론이 위와 같은 서로 다른 종류와의 관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측면에서 예술을 해석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분류는 예술과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통합적 관점, 즉 현대적 관점에서는 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예술가와 감상자의 정신적·육체적 감동이나 경험의 문제이다. 예술활동 중 예술작품과 감상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술 작품은 감상자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고 지성과 감성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술활동은 인간교육의 중심이며 메마른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술은 인간이 갖는 고독이나 고통을 객관화함으로써 개인의 정신적 병을 치유해 나간다.

인성교육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고 원만한 인간성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한 인간의 성품은 그가 지닌 학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를 인간성이라고 한다. 인성교육은 마음의 구성요소인 지·정·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마음의 교육이며, 사람의 됄됨이를 형성하도록 인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개인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이며 사회적인 도덕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도덕교육이 되기도 한다. 서양교육의 기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시대에 교육의 내용을 예술교육에 의존하였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인성교육의 배경으로 예술이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II. 예술치유의 개념과 현황

### 1. 예술치유의 개념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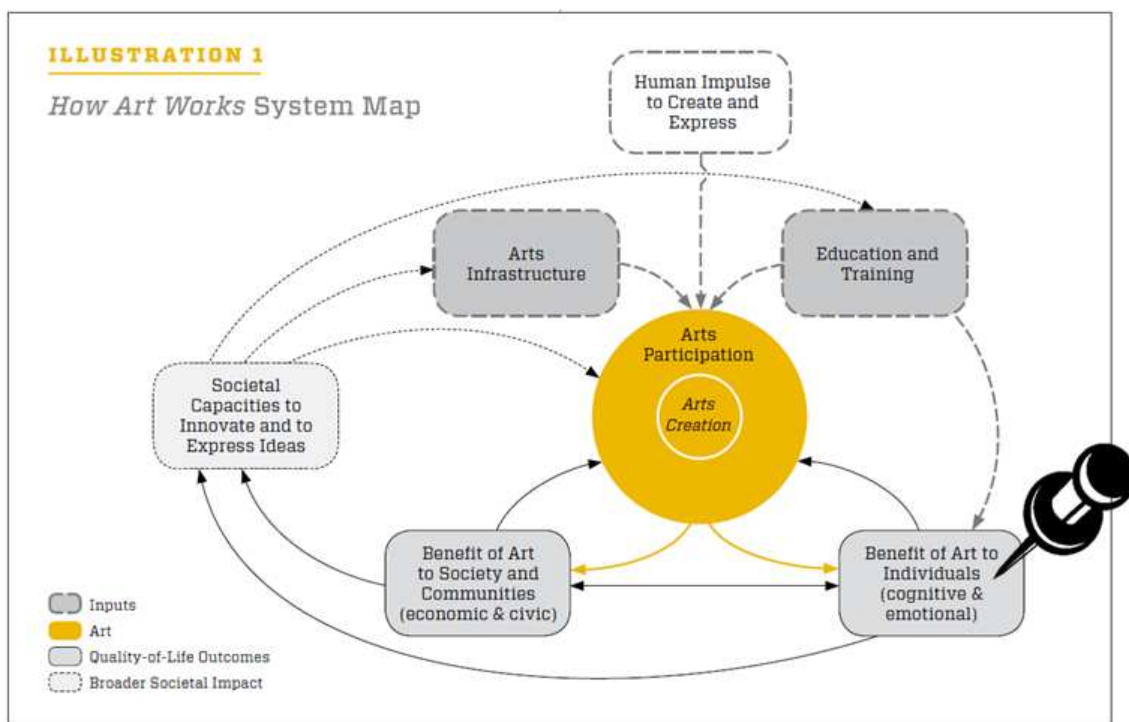
예술치료에서는 ‘치료’의 개념을 의사가 행하는 의술의 의미와는 달리 ‘Therapy’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치료’ 곧 ‘Therapy’라는 말은 그리스어 ‘Therapeia’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참석하다’, ‘돕다’, ‘취급하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넓은 의미의 ‘Therapy’는 “시중을 들어주며, 간호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도움”의 의미가 내포된다. 음악치료(Music Therapy)에서의 ‘Therapy’는 음악을 통한 ‘치료’ 혹은 ‘요법’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보조하다’ 또는 ‘사람을 도와주다’의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부조화에서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치료는 일반 의학에서의 치료(Cure)와 같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치료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이다. 예술을 도구로 하여 인간의 긍정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서, 예술 안에서의 경험과 예술에 의한 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 여기서 예술은 인간영혼의 치료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에 예술은 우리의 내적인 삶을 정화시켜 주고 영적 에너지를 강화시키며 감성을 심화시킨다. 예술은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는 감정을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키며, 활기찬 심리를 영위하게 하며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등의 정신순화의 기능을 한다. 이처럼 예술치료는 처음에는 주로 병원에서 시작되었으나 1940년대 미국 캔자스대학교를 비롯하여 예술치료 강좌가 개설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훈련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예술치료에 대하여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예술의 직접적인 경험인 미적경험이 지닌 내재적 가치를 정신치료에 적용시키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경험은 긴장을 해소시키고 파괴적 충동을 완화시키며, 자아 내부의 갈등을 해소시켜 통일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둘째, 미적경험은 지각과 분별력을 순화시키며, 상상력을 개발시키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미적경험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며, 상호공감과 이해력을 배양시키고, 인간생활에 대한 이상을 제공해 준다.

요약하면,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미적 경험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여 보다 순수한 정신을 가진 건강한 인간으로 소생하게 하는 치료의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술치료활동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정신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헌신적인 생각이 깃든 인간존중사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신뢰, 새로운 방법으로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봉사와 희생 정신, 도덕적인 사고는 정신의 병리를 치료한다는 사고, 건강한 신체는 건전한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사고, 예술은 정신과 육체적인 행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유용하다는 등의 철학적인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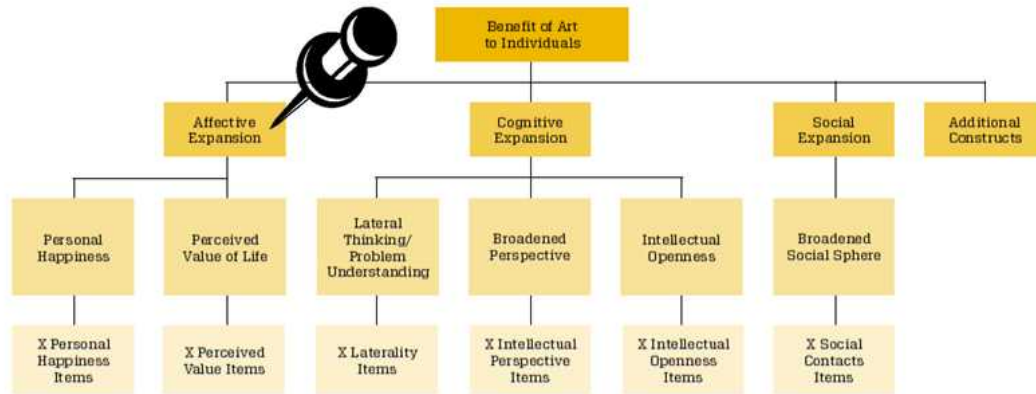
예술과 사회, 개인의 관계 속에서 예술치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NEA의 5개년 연구 어젠다 설정 보고서인 “How Art Works(2012)”의 시스템 맵을 참고하면, 예술치유는 1차적으로 ‘예술이 개인에게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효과’의 일부에 속하며, 2차적으로 ‘예술이 시민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혁신역량 증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 개인에게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효과는 다시 ‘감정적 확장’, ‘인지적 확장’, ‘사회적 확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예술치유는 1차적으로 개인의 행복, 지각된 삶의 질과 같은 감정적 확장과 연관되고, 2차적으로 인지적, 사회적 확장과 관계된다.

**ILLUSTRATION 9**

Example of *Benefit of Art to Individuals* as a Multi-Level Measurement Structure



## 2. 예술치유와 예술치료, 예술교육의 관계

예술치료는 창작행위(그림, 만화, 콜라주, 조각 등)를 통하여 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내면세계와 대면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바꾸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나 질환을 극복하게 하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상업성을 제외한 예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미(윤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추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내면 자아의 인식과 표출이다. 예술에 치료라는 개념이 첨가되면 그 목적은 오히려 한 가지로 줄어들는다.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예술의 본질적 목적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예술치료에 있어 예술행위 즉 표현행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최종 산물의 미학적 가치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동안에 행위자는 자기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게 되고 그 표현과정에서 파편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었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혹은 막연한 욕망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창작은 개념을 구상화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상상력과 본능을 자극하고 사고를 유도하며 감정을 일깨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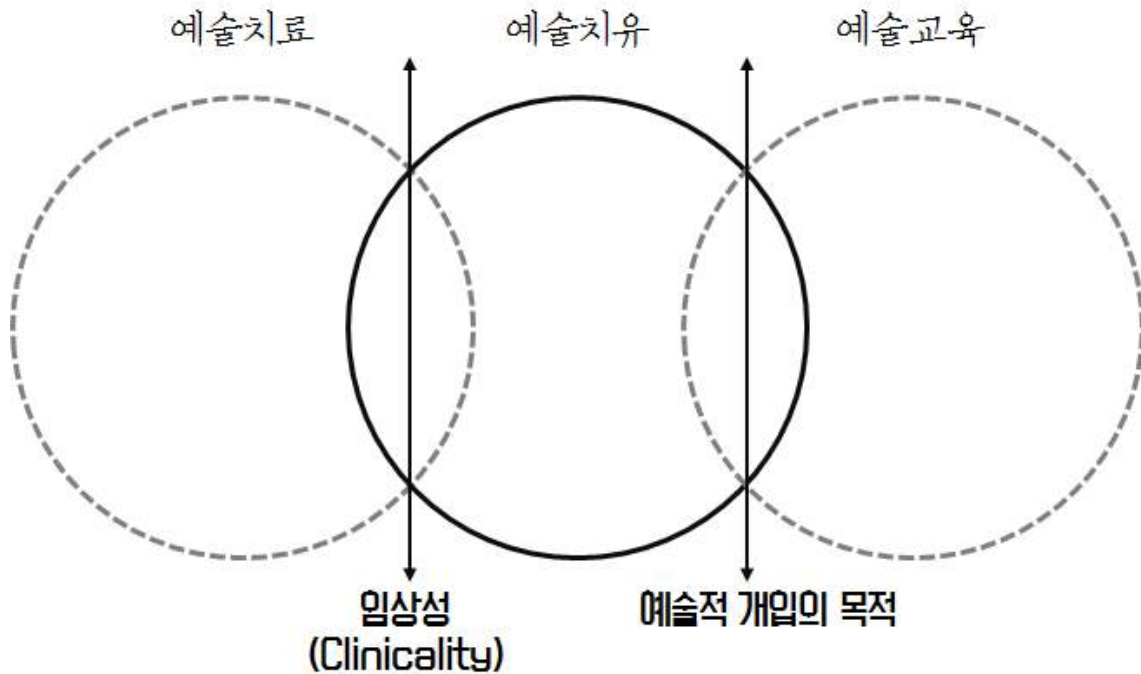
환자와 치료자는 이 창작물을 통해 환자의 내면자아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비전이나 행동동기를 찾아내어 정신적 혹은 정서적 치료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예술치료에 대한 정의는 예술치료를 심리치료의 한 방법론으로 보느냐 아니면 심리치료를 넘어서는 더 큰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예술치료 개론서들은 대체로 예술치료를 심리치료의 한 방법론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는 조심스럽게 예술치료의 위상을 심리치료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현재 투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예술치료학과이다. 이 학과의 수장급 중 하나이고 예술치료의 이론적 기틀을 다져온 리샤르 포레스티에Richard Forestier는 이미 5판 인쇄를 찍어낸 그의 저서 『예술치료의 모든 것』에서 조심스럽게 예술치료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예술치료의 위상이 현대적 학문인 심리학의 한 방법론으로 머무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1999년 초 판본이 나올 때만하더라도 그는 서문에서 이러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2007년 제 5판 인쇄의 서문에서 그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에게 예술치료와 심리치료의 구별은 이미 완료된 것이다. 포레스티에에 따르면 예술치료와 심리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육체에 대한 입장이다.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자간에 소통이 심리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예술치료에서는 육체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예술을 활용한 심리치료와의 차이는 내담자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상담자가 해석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예술치료의 목적은 대상자의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므로 그 표현된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은 불필요하다고 그는 쓰고 있다. 심리치료와의 변별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한편 예술치료는 육체적 훈련을 통해 치료를 꾀하는 또 다른 치료법인 작업요법과도 차이를 갖는다. 작업요법이 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 있어 독립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예술치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치료는 지적활동이나 신체적 운동을 통해 신경체계의 발달을 꾀하는 정신운동학이나 혹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공연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예술치료를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부아예 라브루쉬Boyer-Labrousse 경우나 예술치료를 심리치료와 별개로 보고 있는 포레스티에의 경우 모두 질병관 및 치료목적은 같은 방향으로 수렴된다. 그들에게 예술치료는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잠재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자기표현능력을 키워 환자와 세상간의 소통을 돕고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삶의 안녕을 추구하는 인문적 치료행위인 것이다.

장 피에르 클렌은 예술치료의 방법을 크게 인간 자신이 치료의 매개체가 되는 경우와 가면이나 인형 등 사물이 매개체가 되는 경우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각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총 4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범주에는 인간이 육체적 행위를 동반한 창작을 통해 상징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들을 분류해 놓았는데 회화, 조각, 건축 등을 통틀어 일컫는 조형예술이 이에 속한다. 클렌은 사진과 영화 그리고 동영상 및 이를 이차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까지 이 범주에 포함시킨다. 두 번째 범주는 인간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자신의 몸을 통해 표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범주에는 소위 현장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즉 연극, 춤 등을 비롯한 몸짓들과 짧은 이야기도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인간과 사물을 연결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다. 각종 인형이나 가면들 그리고 분장의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범주는 인간의 감성을 해방시키고 동시에 인간의 감성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음악을 들고 있다.



예술치료와 예술치유 활동을 나누는 주된 기준은 임상성이다. 임상성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갖는 활동을 임상적 활동으로, 정상성의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상성의 기준을 논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만을 고려하는 활동을 비임상적 활동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임상적 성격의 예술치유 활동을 예술치료라고 구분해 부를 수 있다.

예술치유가 주로 ‘표현적 예술(expressive or creative arts)’ 활동 참여를 통해 자존감 회복, 심리적 위안 등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예술교육’은 특정한 지식이나 스킬의 습득 또는 일반적인 문화적 소양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표현적 예술 뿐 아니라 재연 예술 활동 또한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통합적, 전인적 예술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측면과 치유적 측면을 동시에 목적으로 삼기도 함). 사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술교육보다 예술치유가 집단 보다는 1:1의 개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위의 구분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새롭게 대두하여 인문학의 한 분야로 점차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는 ‘인문 치료학’은 별도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존 인문학을 활용해 현대인의 정서적·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이론과 실천방법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다. 그런데 ‘인문학을 활용해 현대인의 정서적·정신적 문제를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그 치료의 대상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치료(Humanities Therapy)는 대개 전통적으로 인문학에서 활용해 오고 있는 읽기나 쓰기, 말하기와 더불어 음악·영화·연극·미술 등 표현 기술적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인문치료의 대상은 반드시 그렇게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문치료의 대상이 되는 ‘인문학적 병’은 불특정 다수가 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서적·정신적 병인을 진단하고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론을 확립하여 적합한 처방을 시도하는 것도 또한 인문치료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개인 또는 집단의 트라우마

치유나 ‘역사’에 말미암은 사회적 병인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는 적절한 역사학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도 국내적으로는 국사 인식의 문제로 인한 내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일본과 벌이고 있는 외적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 문제는 단순한 지나간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과 깊이 연관된 현실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로 인한 갈등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단순히 정치나 연구에 매달리지 않고 인문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진단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문치료와 관련하여 역사인식의 문제나 역사학의 효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모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역사적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상흔 치유와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있으며, 인문치료에서 역사의 효용 가능성 또는 치유적 기능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구술사를 활용한 인문치료 모색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역사학계에서 구술사라는 것이 점차 그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치료학의 입장에서 ‘구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이것이 구술자와 기록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과거의 (고통스런)기억이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효능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집단기억,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한 여러 연구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인문 치료학에 대해서는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 3. 예술치유의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는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연극, 통합 등 통상적인 장르 중심의 구분에 덧붙여 ‘임상성’과 ‘장면’을 주된 분류 기준으로 활용한다. 임상성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갖는 활동을 임상적 활동으로, 정상성의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상성의 기준을 논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만을 고려하는 활동을 비임상적 활동으로 나눈다. 장면은 예술치유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장면을 나눈 것으로 병원, 학교, 사회의 세 가지 장면으로 분류한다. 병원에서는 발달장애, 심리치료, 대체의학, 감각장애치료, 환자회복지원 등의 차원에서, 학교에서는 충동 및 감정조절, 학습장애를 위해, 일반 사회 장면에서는 자기발견과 삶의 의미, 행복 추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한 것이다.

- 1. 임상성(clinicality) : 임상( $C_1$ ), 비임상( $C_0$ )
- 2. 장면(scene) : 병원( $S_1$ ), 학교( $S_2$ ), 사회( $S_3$ )
  - 병원 : 발달장애, 심리치료/대체의학/감각장애치료/환자회복지원 등
  - 학교 : 충동, 감정조절/학습장애 등
  - 사회 : 자기발견, 삶의 의미와 행복추구 등
- 3. 장르(genre) : 음악( $G_1$ ), 미술( $G_2$ ), 문학( $G_3$ ), 무용( $G_4$ ), 연극( $G_5$ ), 통합( $G_6$ )

문학을 통해 치료효과를 기대했던 경우는 1959년 엘리자베스 뱅Elisabeth Bing이 성격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작업실ateliers d'écriture’을 열면서 시작된다. 일종의 대안학교적 성격으로 시작된 이 작업실은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해 레이몽 크노 Raymond Queneau가 수학자인 프랑소와 르리네François LeLinnais와 더불어 창설한 ‘우릴포 OULIPO’역시 이에 못지 않은 의욕적인 행보를 밟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많은 문학작업실들이 읽기와 쓰기를 신경증과 신체적 장애 및 사회적 소외를 이겨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자서전 쓰기, 편지쓰기, 시쓰기와 더불어 근래에는 영미문화권에서 먼저 시작되어 프랑스에 수입된 독서치료 등이 문학치료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치료에 사용되는 시각예술에는 그림과 조각 그리고 사진, 영화 등이 포함된다. 20세기 들어 미술치료의 새로운 기원을 연 사람으로는 흔히 영국인 아드리안 힐Adrian Hill이 언급되고 있다. 폐결핵 환자였던 그는 병과 싸워나갔다. 병마에 사로잡혀 무기력에 빠졌던 그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그에게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는 효용을 넘어서 삶에 대한 건설적인 사고를 유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는 1945년 그림의 치료적 효과에 관한 책을 쓰기에 이르고 이 책은 1947년 프랑스어로 번역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그림을 통한 정신병의 진단과 치료가 샤르코 이후 이미 100여년을 지속되어 온 전통이 있었다. 조각이나 세공도 작업요법 응용의 한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토기 제작이나 토기 인형 만들기 등은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재중의 하나인 흙과의 접촉을 통해 정서적 변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임상결과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 또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기 힘든 환자들에게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영화나 비디오 자료들도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로르갱Lorquin에서 매년 로르갱 영화축제는 “영화를 통한 정신건강”을 주제로 치료관련 종사자 및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32회를 맞고 있다.

연극은 사이코 드라마 혹은 소시오드라마라는 형태로 이미 정신병이나 신경증의 치료에 널리 활용되어왔다. 전세계 사람들이 사이코 드라마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모레노의 영향은 프랑스에서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수백 가지의 연극치료 모델이 존재하지만 그 모델들은 모레노가 임상에 활용했던 다음 3가지 테크닉, 즉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할전도, 표현이 불가능했던 것을 표출시키는 또 다른 자아인 분신, 상상을 통한 미래의 투사를 기본으로 한다. 프랑스에서 연극을 통한 치료의 대표적인 경우로 클렌은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활동을 펼쳤던 니콜 샤르파일Nicole Charpail과 ‘연극포럼Théâtre forum’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쳤던 ‘오귀스토 보알Augusto Boal’의 경우를 들고 있다.

예술치료의 형태들 중 춤을 이용한 치료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동양의 사마니즘의 의식에서부터 그리스신화의 코리반트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은 그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춤을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의 도구로 활용했다. danse-therapy의 시원을 채이스 마리안Chace Marian에게서 보고 있다. 미국에서 발원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던 춤 치료는 프랑스에서는 이국적인 취향과 더불어 발전을 한다. 1970년대부터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정열적인 무용수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춤이 지니고 있는 주술적,치료적 효능을 프랑스의 무대에서 소개하면서 춤은 폴 발레리식의 인식을 넘어서 치료적 효과를 지닐 수 있는 인간의 표현행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음악치료의 역사는 음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음악치료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모든 입문서들은 플라톤이 그의 『국가론』에서 음악의 효용이 “인간을 즐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번민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라고 한 말을 즐겨 인용한다.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에는 19세기 중엽부터 정신병 치료에 음악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악

을 활용한 치료가 소위 과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였다. 유럽에서는 1942년 스웨덴의 폰트빅Dr. Pontvik의 경우를 시작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1946년 캔사스 대학에 음악치료 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이후 정신치료영역과 특수교육영역 그리고 신경재활영역에서 음악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데 프랑스에서도 교육학에서 몬테소리나 빌렘 등이 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주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1972년 창립된 ‘국제음악치료센터’에서는 현재까지 500여명의 음악치료사를 배출하였고 프랑스 전역에 걸쳐 400여 곳의 병원 및 치료시설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인 베르도파이유Verdeau-Pailles Jacqueline는 1976년 음악치료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저서에서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음악이 신체의 기관중 호흡기 및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여 만들어진 그의 치료모델은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음악치료방법은 비아르C.Wiart의 미술치료방법론이나 다르E. Dars의 연극치료방법론과 연결되기도 한다. 현재 음악치료는 예술치료의 한분야로서 혹은 독립적인 치료분야로서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III. 예술치유 관련 실태조사 결과

#### 1. 예술치유 관련 단체 현황

##### (1) 예술치유 관련 단체 현황 분석

1999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미술치료전공을 시작으로 현재 학부과정은 7개 대학에, 석사과정은 18개 대학에 미술치료학과, 예술상담학과, 예술치료학과, 표현예술치료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 내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이론과 현장실습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대학도 있음

예술치료자격증 발급은 예술관련 학부 졸업 후 대학원이나 민간기관을 통해 취득이 가능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현황에서 예술, 미술, 동작, 무용, 음악, 연극을 검색어로 설정했을 때 예술치료 관련 상담사 자격증은 총 174개로 확인됨

예술치료 관련 주요 학회 및 협회는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사)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등을 들 수 있음

<표> 예술치료 관련 주요 학회 및 협회

구분	내용
(사)한국미술치료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개요 1992년 창립한 사단법인 형태로 현재 2,200여명의 정회원 및 단체회원 70곳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학술등재지「미술치료연구」발행을 통해 미술치료 분야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중독 문제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미술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li> <li>· 주요활동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최근에는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전망',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지원전략', '위기청소년의 현황과 정부의 대책', '청소년기 자살 기도자의 위기 개입과 집중치료' 등과 같은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음. 이 밖에 월례세미나, 소식지발간, 전시회 개최를 통한 미술치료사간의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미술치료사(KATR)자격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7회,</li> </ul>

	<p>2,800명 이상 응시하였음 (<a href="http://www.korean-arttherapy.or.kr/index.html">http://www.korean-arttherapy.or.kr/index.html</a>)</p>
(사)한국예술 치료학회	<p>· 기관개요 2001년 설립된 기관으로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예술치료학과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p> <p>· 주요활동 지역별 지부 및 연구소를 두고 있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학술대회 개최, 정기간행물을 발간을 통해 학술적 연구에 힘쓰고 있음 (<a href="http://www.artstherapy.or.kr/index.html">http://www.artstherapy.or.kr/index.html</a>)</p>
(사)한국표현예술심리 치료협회	<p>· 기관개요 1987년 뉴욕 맨하탄 한미예술센터 내 바리콧두 인형극단창설을 기점으로 여성과 아동대상 미술치료를 시작함. 1995년 서울 한국예술심리치료연구소를 개설하고 1998년 세계표현예술치료협회(IEATA)한국지부 승인이후 1999년 지금의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가 설립됨</p> <p>· 주요활동 주요활동으로는 예술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동국대, 명지대, 숙명여대, 인천가톨릭대, 강원대, 연세대, 고려대, 제주교대 등의 사회교육원에서 표현예술심리치료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a href="http://www.keapa.or.kr">http://www.keapa.or.kr</a>)</p>
(사)한국미술 심리치료협회	<p>· 기관개요 1996년 설립이후 국내최초 미술치료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6개 시도지부 산하 전국 140여 곳의 산학협력대학교 및 인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국내학술연구 법인으로는 한국미술심리치료학회, 한국아동미술심리치료학회, 한국치매미술심리치료학회가 있으며, 국제미술치료 학술교류법인으로는 국제공인미술심리치료학회, 한국치매미술심리치료학회가 활동하고 있음</p> <p>· 주요활동 주요활동으로는 미술심리치료사 및 미술치료단체 권익보호를 위한 각 단체별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치료 분야에 대한 저변확대를 목표로 치료센터 개원, 캠프 프로그램과 같은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기여를 위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p>

	사업, 상담사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음 ( <a href="http://kapa.pe.kr">http://kapa.pe.kr</a> )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p>· 기관개요</p> <p>1996년 민법 제32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됨. 본 기관은 자기회복(Identity)을 시작으로 자신의 내적, 외적 필요(Need)를 깨닫고, 교육(연수)을 통하여 계발(Development:연마)함으로써, 자·정·의를 고루 갖춘 가슴(Mind)따뜻한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음</p> <p>· 주요활동</p> <p>주로 심성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심성교육, 복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가족, 노인상담, 미술심리상담사, 독서심리상담사와 진로 및 직업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양한 대학, 도서관, 교육센터 및 상담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a href="http://www.edumental.org">http://www.edumental.org</a>)</p>

- 대학병원의 부설기관이나 의학대학 내 정신건강 관련 연구소에서 예술을 통한 통합치료를 시도하고 있음

<표> 국내 대학병원 예술치유 관련 부설기관

구분	내용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p>· 기관개요</p> <p>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는 예술과 의학이 만나 예술적 감성을 통한 전인적 치유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9월20일 개소한 국내 최초의 대학병원 소속 통합적 예술치유센터임. 병원이 주도하여 전 진료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동작, 문학,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결합해 통합적인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음</p> <p>· 주요활동</p> <p>아동과 성인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주중 상시로 참여 가능한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예술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또한 외래 환자 및 개인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며, 힐링 콘서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음 (<a href="http://www.mjcah.com">http://www.mjcah.com</a>)</p>

<p>삼성의료원 어린이 병원학교</p>	<p>· 기관개요</p> <p>장기간 입원하는 어린 환우들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마련한 어린이 병원학교로 2007년 개관하였음. 장기 치료로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강남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과정과 학습 자료를 지원받아 이수확인증을 발급하고 일반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p> <p>· 주요활동</p> <p>교실이 2곳으로 TV, DVD, PC 등이 갖춰져 있으며, 교사는 약 2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음. 하루 3교시 수업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기본으로 미술치료, 피아노, 실험과학 등 다채로운 수업이 이루어짐. 또한 수업시간 외에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음</p> <p>(<a href="http://blog.samsung.com/2953">http://blog.samsung.com/2953</a>)</p>
-------------------------------	---

-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이 후원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최한 정신건강박람회가 있음. 정신건강박람회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공익박람회’임.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주제들을 연령별, 테마별로 제시하고 있음
-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살예방, 중독예방·치료재활, 아동청소년·성인·노인대상으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나 예방을 위한 자가체크와 상담이 진행됨. 부수적으로 정신건강 미술제와 블루터치 카페, 힐링하는 책 읽기 코너가 마련됨



## (2) 예술치유 관련 단체 현황

### 가. 예술치료·치유 일반

#### 1) 대한예술치료협회

소재지	경북 경산시																																														
홈페이지	http://대한예술치료협회.kr/																																														
연락처	053-811-7739																																														
대표자	김종환																																														
설립연도	2011																																														
주요사업	1. 예술치료학의 연구활동과 학술적인 지식의 향상 2. 예술치료 협회지의 발간 및 회원의 저서 발간 3.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한 예술심리치료 봉사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1">분류체계</td><td rowspan="3">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C0</td><td></td><td></td><td>S3</td><td>G1</td><td>G2</td><td></td><td>G4</td><td>G5</td><td>G6</td></tr><tr><td colspan="11"></td><td>C0S3G6</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3	G1	G2		G4	G5	G6												C0S3G6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3	G1	G2		G4	G5	G6																																					
											C0S3G6																																				

#### 2) 한국아동청소년예술치료협회

소재지	서울 송파구											
홈페이지	http://kcata.co.kr/											
연락처	02-419-8489											
대표자	이명은											
설립연도	1998											
주요사업	학문 연구 및 전문인 양성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1				S3	G1						C1S3G1

#### 3) 한국예술문화치료학회

소재지	부산 남구																																				
홈페이지	http://kacti.web.riss4u.net/																																				
연락처	051-620-4890																																				
대표자	나동광																																				
설립연도	2008																																				
주요사업	1. 예술문화전반 치료 및 이에 관련된 학술 연구와 조사 2. 학술지발간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CO</td><td></td><td></td><td>S3</td><td>G1</td><td></td><td></td><td></td><td></td><td></td><td>COS3G1</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O			S3	G1						COS3G1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O			S3	G1						COS3G1																										

#### 4)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소재지	대전 서구																																				
홈페이지	http://www.k-apa.or.kr/																																				
연락처	0502-828-8275																																				
대표자	정광조																																				
설립연도	2004																																				
주요사업	1. 예술심리치료 및 관련 분야의 연구 및 발표 2. 예술심리치료 관련 임상 활동 지원 3. 학술지 및 기타 연구지 발행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2">분류체계</td><td rowspan="3">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C1</td><td></td><td>S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C1S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1		S1									C1S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1		S1									C1S2																										

#### 5) 한국예술치료사협회

소재지	서울 송파구																																		
홈페이지	http://www.katao.kr/																																		
연락처	02-2266-8809																																		
대표자	이순화																																		
설립연도	2012																																		
주요사업	1. 전문 예술치료사의 육성, 교육하는 사업 2. 예술치료사 자격증을 심의 및 관리하는 사업 3.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 4. 정신, 신체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사업 등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3">단체성격</th></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C2</td><td></td><td></td><td></td><td>G1</td><td>G2</td><td></td><td></td><td></td><td>G6</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2				G1	G2				G6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2				G1	G2				G6																									

## 6) 한국예술치료학회

소재지	전북 익산시																																														
홈페이지	http://www.artstherapy.or.kr/																																														
연락처	063-850-6320																																														
대표자	정동훈																																														
설립연도	2001																																														
주요사업	1. 예술치료학의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2. 예술치료학의 발전을 위한 교사연수교육주관 및 원격강의 개최 3. 예술치료 학회지의 발간 및 회원의 저서 발간 4. 장애인을 위한 사회 복지사업 5. 국제예술치료학회 및 국내의 예술치료 관련 학회와의 상호 교류 6. 장학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3">단체성격</th></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C1</td><td></td><td></td><td></td><td></td><td>G1</td><td>G2</td><td></td><td>G4</td><td>G5</td><td></td></tr><tr><td colspan="11"></td><td>C1G6</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1					G1	G2		G4	G5													C1G6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1					G1	G2		G4	G5																																						
											C1G6																																				

## 7) 한국예술치료협회

홈페이지	http://www.kaat.or.kr/																																		
연락처	02-575-7687																																		
대표자	윤태원																																		
설립연도	1992																																		
주요사업	1. 예술을 통한 심신장애우 재활 2. 학술 대회 및 연구발표회 3. 협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예술치료 연수회 개최 5. 예술치료사의 양성 및 교육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1">분류체계</td><td rowspan="3">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G1</td><td>G2</td><td></td><td>G4</td><td>G5</td><td>G6</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2		G4	G5	G6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2		G4	G5	G6																									

### 8) 한국임상치유예술학회

소재지	전북 익산시																																			
홈페이지	http://www.lovearttherapy.com/																																			
연락처	063-850-5097																																			
대표자	이상열																																			
설립연도	2005																																			
주요사업	1. 예술심리상담 분야 학술 연구 발표회, 워크샵, 심포지움 등 개최 2. 학술 및 임상 연구지 등 발간 3. 예술심리상담 분야에 관한 공공활동 지원 및 정책 건의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구현에 필요한 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C0</td><td></td><td></td><td>S3</td><td>G1</td><td>G2</td><td></td><td>G4</td><td></td><td>G6</td><td>C0S3G6</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3	G1	G2		G4		G6	C0S3G6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3	G1	G2		G4		G6	C0S3G6																									

### 9) 한국통합예술심리치료협회

소재지	부산 동구																																			
홈페이지	http://www.kita21.com/																																			
연락처	051-463-0118																																			
대표자	이창안																																			
설립연도	1989																																			
주요사업	1. 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및 통합예술심리치료사 양성 및 평생교육원 설치에 따른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자격증에 관한 사업 2. 통합예술심리치료행사를 통한 문화사업과 국가가 요구하는 통합예술심리치료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행사 대행 3.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 4. 통합예술심리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재 연구 및 교육관 운영과 통합예술심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활동에 관한 사업 6. 통합예술심리학술세미나 개최 및 통합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에 관한 사업 7. 평생교육원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G1</td><td>G2</td><td></td><td></td><td></td><td>G6</td><td>G6</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2				G6	G6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2				G6	G6																									

10) 한국통합예술치료상담학회

소재지	대구 수성구																																			
홈페이지	http://www.kiatia.co.kr/																																			
연락처	053-216-6477																																			
대표자	나해숙																																			
설립연도	2002																																			
주요사업	1. 통합예술치료의 임상 및 학술적 연구 2.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3.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4. 통합예술치료 연수회 개최 5. 통합예술치료 전문가 양성 및 자격관리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C0</td><td></td><td></td><td>S3</td><td>G1</td><td>G2</td><td></td><td></td><td></td><td>G6</td><td>C0S3G6</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3	G1	G2				G6	C0S3G6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3	G1	G2				G6	C0S3G6																									

11)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소재지	서울 서초구																																				
홈페이지	http://www.keapa.or.kr/																																				
연락처	02-3481-5393																																				
대표자	김진숙																																				
설립연도	1995																																				
주요사업	1. 정기적인 전문교육과정 운영 2. 협회의 취지에 적절한 전시회 등 특별활동, 임상교육을 위한 field work 연결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3">단체성격</th></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C1</td><td></td><td></td><td></td><td>S3</td><td>G1</td><td>G2</td><td></td><td>G4</td><td>G5</td><td>G6</td><td>C1S3G6</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1				S3	G1	G2		G4	G5	G6	C1S3G6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1				S3	G1	G2		G4	G5	G6	C1S3G6																										

## 나. 문학

### 12) 대한문학치료학회

소재지	대구 북구																																					
홈페이지	http://www.lt.or.kr/																																					
연락처	053-950-5149																																					
대표자	조현춘																																					
설립연도	2009																																					
주요사업	1. 문학치료의 학술적, 임상적 연구 2.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3. 학술대회 및 문학치료 연수회 개최 4. 문학치료전문가 양성 및 자격관리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3</td><td></td><td></td><td></td><td></td><td>G3</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3					G3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3					G3																										

### 13) 세계독서치료학회

소재지	광주 북구																																				
홈페이지	http://www.bibletherapy.co.kr/																																				
연락처	062-431-7271																																				
대표자	김성구																																				
설립연도	2003																																				
주요사업	1. 치료문화가 육성과교육을 통한 독서치료에 대한 보급을 확대 2. 문화사역자 양성과정 운영 혹은 양성과정을 운영 3. 국내외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4. 문화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3">단체성격</th></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3</td><td></td><td></td><td></td><td>G3</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3				G3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3				G3																										

#### 14) 한국독서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종로구																																			
홈페이지	http://www.bibliotherapy.or.kr/																																			
연락처	070-4107-2238																																			
대표자	이명우																																			
설립연도	2003																																			
주요사업	1. 정기모임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독서치료에 관련한 출판물 편집과 간행 3. 세미나 및 workshop개최 4. 독서치료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3</td><td></td><td></td><td></td><td>G3</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3				G3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3				G3																									

#### 15) 한국독서치료협회

소재지	경기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kabt.or.kr/																																			
연락처	070-8965-4766																																			
대표자	신은진																																			
설립연도	2008																																			
주요사업	1. 독서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보급, 자문 2. 독서치료에 관련한 출판물 편집과 간행 3. 세미나 및 workshop 개최 4. 국내외 독서치료 및 인접 학문 단체와의 제휴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C0</td><td></td><td>S2</td><td></td><td></td><td></td><td>G3</td><td></td><td></td><td></td><td>C0S2G3</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2				G3				C0S2G3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2				G3				C0S2G3																									

## 16) 한국문학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literarytherapy1999.net/																																					
연락처	032-860-7844																																					
대표자	김석희																																					
설립연도	2003																																					
주요사업	1.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문학치료에 관련한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3.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4. 문학치료 관련 전문가 육성 5. 문학치료 관련 전문가의 자격 규정 및 추천 6. 문학치료 외 독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등 인접 학문 단체와의 제휴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3</td><td></td><td></td><td></td><td></td><td>G3</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3					G3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3					G3																										

## 17) 한국발달독서치료협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ADB/																																				
연락처	070-8256-6662																																				
대표자	정명자																																				
설립연도																																					
주요사업	1.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 2. 전문자격증(독서심리지도사) 취득을 위한 지원 3. 세미나 및 workshop개최 4. 국내 독서치료 및 인접 학문 단체와의 제휴 5.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자원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C0</td><td></td><td>S2</td><td></td><td></td><td></td><td>G3</td><td></td><td></td><td></td><td>C0S2G3</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2				G3				C0S2G3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2				G3				C0S2G3																										



# 18)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

소재지	부산 연제구											
홈페이지	http://literatherapy.or.kr/											
연락처	051-752-3675											
대표자	나동광											
설립연도	2005											
주요사업	문학치료 이론과 임상일습을 널리 보급, 문학치료사 양성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2				G3				C0S2G3

## 다. 미술

### 19)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강남구																																			
홈페이지	http://www.kacat.co.kr/																																			
연락처	070-4207-6419																																			
대표자	김선현																																			
설립연도	2005																																			
주요사업	1. 국내 . 외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및 도서 발간 3. 분야별 학술연구모임 및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4. 자격증 과정 5. 해외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6. 결연된 병원 , 학교 , 연구소등과 국제교류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C0</td><td></td><td>S2</td><td></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C0S2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2			G2					C0S2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2			G2					C0S2G2																									
회원규모																																				
인력규모																																				

### 20)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소재지	부산 연제구																																			
홈페이지	http://www.kapa.pe.kr/																																			
연락처	1600-3275																																			
대표자	김문갑																																			
설립연도	1998																																			
주요사업	1. 국가지원 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2. 정부출자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업 3. 미술심리치료사 및미술치료단체 권익보호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C0</td><td></td><td></td><td>S3</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C0S3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3		G2					C0S3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0			S3		G2					C0S3G2																									

## 21) 한국미술치료학회

소재지	대구 중구																																					
홈페이지	http://www.korean-arttherapy.or.kr/																																					
연락처	053-243-0670																																					
대표자	김갑숙																																					
설립연도	1992																																					
주요사업	1. 학술연구 발표 2. 미술치료관련 연구지원 3. 학술지 발행 4. 국제간의 학술교류 5. 회원 재교육 및 연수 6.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td><td>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22) 한국사진심리치료학회

소재지	충북 제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PPAs/																																				
연락처	043-642-3275																																				
대표자	김활언																																				
설립연도	2013																																				
주요사업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인간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사진심리치료사 자격제도 시행 5.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3">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CO</td><td></td><td></td><td>S3</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C0S3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O			S3		G2					C0S3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O			S3		G2					C0S3G2																										

### 23) 한국사진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강동구																																			
홈페이지	http://www.kopta.org/																																			
연락처	02-441-4275																																			
대표자	심영섭																																			
설립연도	2012																																			
주요사업	1. 사진치료사 양성 2. 사진치료와 연관된 학술연구 및 발표 3. 사진치료 관련 학술지 발간 4. 사진치료사 자격제도 시행 5.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연대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CO</td><td></td><td></td><td>S3</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C0S3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O			S3		G2					C0S3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O			S3		G2					C0S3G2																									

### 24) 한국사회복지미술치료사협회

소재지	서울 동작구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AAS/																																					
연락처																																						
대표자	김태숙																																					
설립연도																																						
주요사업	1. 미술치료학의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2. 미술치료학의 발전을 위한 연수교육 주관 및 원격강의개최, 3. 학회지의 발간 및 회원의 저서발간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td><td>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25) 한국색채심리치료협회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홈페이지	<a href="http://www.color07.com/">http://www.color07.com/</a>
연락처	02-703-8133
대표자	김성자
설립연도	2005
주요사업	1. 색채와 미술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연구 및 발표 2. 색채와 미술심리관련 연구지원 3. 학술지 발행 4. 국제간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연수 및 재교육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26) 한국색채치료협회

소재지	부산 연제구																																			
홈페이지	http://kcpa.pe.kr/																																			
연락처	1600-3275																																			
설립연도	1998																																			
주요사업	1. 국가지원 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2. 색채심리치료 관련 학술지원 및 출판사업, 3. 정부청사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업, 4. 색채심리치료 및 예술심리치료 저변확대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27) 한국서예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종로구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ovebrush/																																			
연락처																																				
대표자	조영랑																																			
설립연도	2001																																			
주요사업	1. 서예치료에 관한 학문적 연구, 2.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3. 학술연구지 발간, 4. 학문의 국제 교류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1">분류체계</td><td rowspan="2">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28) 한국아동미술치료학회

소재지	대구 수성구
홈페이지	<a href="http://www.kca-therapy.com/">http://www.kca-therapy.com/</a>
연락처	053-749-7340
대표자	박해동
설립연도	2006
주요사업	1. 미술심리상담사에 관한 문화 홍보 사업, 2. 대한민국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3. 미술심리상담사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29)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소재지	서울 마포구												
홈페이지	http://www.kata.ne.kr/												
연락처	1688-7503												
대표자	하민철												
설립연도	2005												
주요사업	1. 국가지원사업 공모프로그램 지원 기관선정 제공 2. 연계 미술치료사 위탁경영 3. 미술치료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회공헌사업 4. 미술치료 임상자료 연구개발 및 발간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30) 한국임상미술심리치료학회

소재지	경기 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k-arttherapy.co.kr/											
연락처	031-400-5106											
대표자	박경진											
설립연도	2010											
주요사업	1. 미술치료학의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2. 미술치료학의 발전을 위한 연수교육 주관 및 원격강의개최, 3. 학회지의 발간 및 회원의 저서발간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31)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소재지	경기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kamhat.or.kr/												
연락처	031-264-8825												
대표자	신동근												
설립연도	2006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 32) 한국치매미술협회

소재지	경기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chimaeart.com/												
연락처	031-236-1533												
대표자	신현옥												
설립연도	1999												
주요사업	1. 치매미술치료사 전문가 교육 및 양성, 2. 미술치료법 홍보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C1				S3		G2					C1S3G2	

## 라. 음악

### 33) 고신음악심리치료협회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홈페이지	http://www.ksmta.or.kr/																																					
연락처	051-803-0503																																					
대표자	이드보라																																					
주요사업	1. 학술 세미나 등 지식 정보 교류 및 제공 활동, 2. 회원의 전문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3. 국내외의 협회 등과의 학문적 교류,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G1</td><td></td><td></td><td></td><td></td><td></td><td></td><td>G1</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 34) 대한음악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kamt.com/											
연락처	02-3436-1904											
대표자	김군자											
설립연도	1996											
주요사업	1. 정신건강에 과한 이해와 음악치료의 임상 및 학문적 발달에 기여, 2.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도모를 목적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 35)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소재지	서울 마포구																																					
홈페이지	http://www.nakmt.or.kr/																																					
연락처	02-719-3404																																					
대표자	이인용																																					
설립연도	2007																																					
주요사업	1. 음악치료사 자격인증을 위한 시험 운영 및 자격 관리, 2. 교육과정의 통일 및 보수교육 체제 마련, 3. 연구 지원 및 학술행사 개최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2">분류체계</td><td rowspan="2">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G1</td><td></td><td></td><td></td><td></td><td></td><td></td><td>G1</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 36) 한국음악치료사협회

소재지	서울 용산구																																			
홈페이지	http://musictherapy.co.kr/																																			
연락처	02-582-7906																																			
대표자	박정미																																			
설립연도	1999																																			
주요사업	1. 프로그램 개발, 2. 음악치료 슈퍼바이저 양성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1">분류체계</td><td rowspan="2">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G1</td><td></td><td></td><td></td><td></td><td></td><td>G1</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 37) 한국음악치료임상응용학회

소재지	서울 마포구																																			
홈페이지	http://www.kmtaca.net/																																			
연락처	070-4126-0928																																			
대표자	하준성																																			
설립연도	2004																																			
주요사업	1. 음악치료학의 발전 2. 임상 및 응용분야에서의 전문 3. 창의적인 연구 장려 4. 음악치료 서비스 홍보 및 확산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G1</td><td></td><td></td><td></td><td></td><td></td><td>G1</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 38) 한국음악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musictherapy.or.kr/																																			
연락처	02-710-9657																																			
대표자	최병철																																			
설립연도	1996																																			
주요사업	1. 음악치료연구를위한연구정보의수집, 2. 교환및배포활동, 3. 학술회의개최및학술지발행, 4. 각국의관계학회와학술자료및지식의교환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G1</td><td></td><td></td><td></td><td></td><td></td><td>G1</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1						G1																									

### 39)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소재지	대구 달서구											
홈페이지	http://www.krmta.com/											
연락처	070-8911-6673											
대표자	황준성											
설립연도	2011											
주요사업	음악을 통한 심리치료를 위한 솔루션 구축											
분류체계												
	분류체계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단체성격
	C0		S2		G1							C0S2G1

### 마. 무용, 동작

#### 40)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강남구																																													
홈페이지	http://www.ksdmp.org/default/																																													
연락처	02-570-9762																																													
설립연도	2011																																													
주요사업	1. 무용/동작심리치료 분야의 학술 연구, 2.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전문가 교육 및 훈련감독, 3. 연구발표 및 강습회 개최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1">분류체계</td><td rowspan="3">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4</td><td></td><td></td><td>G4</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 41) 한국댄스테라피협회

소재지	서울 종로구																																													
홈페이지	http://www.kdmta.com/																																													
연락처	02-744-5157																																													
대표자	류분순																																													
설립연도	1993																																													
주요사업	1. 전문적인 무용/동작치료사 양성, 2. 무용/동작치료의 임상효과 연구 및 발표 3. 국민의 정신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3">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4</td><td></td><td></td><td>G4</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 42)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소재지	경기 성남시																																					
홈페이지	http://www.dmtsk.co.kr/																																					
연락처	031-782-5151																																					
대표자	김인숙																																					
설립연도	1994																																					
주요사업	1. 학술연구및발표, 2. 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지원및연구활동, 3. 학술지발간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2">분류체계</td><td rowspan="2">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4</td><td></td><td></td><td></td><td>G4</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 43) 한국무용/동작치료교육학회

소재지	서울 종로구																																					
홈페이지	http://dmtedu.com/																																					
연락처	02-3143-0501																																					
대표자	김명숙																																					
설립연도	2011																																					
주요사업	1. 무용/동작치료교육      활성화 2. 학술 연구 및 발표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2">분류체계</td><td rowspan="2">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4</td><td></td><td></td><td>G4</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 44) 한국춤테라피학회

소재지	서울 서초구																																					
홈페이지	http://www.dancetherapy.or.kr/																																					
연락처	02-582-2181																																					
대표자	박선영																																					
설립연도	2003																																					
주요사업	1. 춤동작치료사 전문인 양성, 2. 학회지 발간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2">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4</td><td></td><td></td><td></td><td>G4</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4				G4																										

바. 연극

45) 한국드라마테라피스트협회

소재지													
홈페이지	<a href="http://cafe.daum.net/dtacademy">http://cafe.daum.net/dtacademy</a>												
연락처													
대표자	오명희												
설립연도	2007												
주요사업	1. 학술연구 및 발표와 뉴스레터 및 학술지 발간, 2. 연극의 치료적 효용성으로 활용하는 사회봉사 활동,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5			G5

46) 한국연극치료학회

소재지	서울 종로구												
홈페이지	<a href="http://www.kidt.org/">http://www.kidt.org/</a>												
연락처	02-940-4560												
대표자	홍유진												
설립연도	2004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5			G5

47) 한국연극치료협회

소재지	서울 서초구												
홈페이지	<a href="http://www.kadt.or.kr/">http://www.kadt.or.kr/</a>												
연락처	02-3478-0975												
대표자	박미리												
설립연도	2005												
주요사업	1. 연극치료연구소 운영, 2. 전문인 양성, 워크숍 개최, 3.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 연구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5			G5

사. 기타

48) 공연예술치료협회

소재지	서울 송파구																																			
홈페이지	http://www.pata.or.kr/																																			
연락처	02-6402-7984																																			
대표자	선원필																																			
설립연도	2008																																			
주요사업	1. 공연 예술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훈련 및 연수지원, 3. 통합 심신 치료 목적 공연 형식의 개발 및 보급, 4. 공연예술치료 관련교육 개발 및 학술활동 및 연구지원																																			
분류체계	<table><tr><th colspan="11">분류체계</th><th rowspan="2">단체성격</th></tr><tr><th>C1</th><th>C0</th><th>S1</th><th>S2</th><th>S3</th><th>G1</th><th>G2</th><th>G3</th><th>G4</th><th>G5</th><th>G6</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G5</td><td></td><td>G5</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5		G5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5		G5																									

49) 한국 Art & Play 치료학회

소재지	충남 천안시																																			
홈페이지	http://www.anptherapy.com/																																			
연락처	041-578-8751																																			
대표자	임호찬																																			
설립연도	1998																																			
주요사업	1. 미술및놀이심리상담연구발표회개최, 2. 미술및놀이심리상담전문가의양성및훈련, 3. 심리상담 분야 종사자 및 부모의 교육과 훈련																																			
분류체계	<table><tr><td colspan="11">분류체계</td><td rowspan="2">단체성격</td></tr><tr><td>C1</td><td>C0</td><td>S1</td><td>S2</td><td>S3</td><td>G1</td><td>G2</td><td>G3</td><td>G4</td><td>G5</td><td>G6</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G2</td><td></td><td></td><td></td><td></td><td>G2</td></tr></table>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2					G2																									

50)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소재지	대전 중구											
홈페이지	http://www.cinematherapy.kr/											
연락처	042-602-5499											
대표자	심영섭											
설립연도	2007											
주요사업	1. 영상영화치료사 양성, 2. 영상영화치료와 연관된 학술연구 및 발표, 3. 학술지 발간, 영상영화치료사 자격제도 시행											
분류체계												
	분류체계										단체성격	
	C1	C0	S1	S2	S3	G1	G2	G3	G4	G5		G6
										G5		G5

## 2. 예술치유 관련 자격증 현황

### (1) 자격증 현황에 대한 분석

유럽 국가에서는 자격이 학력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력과 구별되는 ‘직업자격’을 통상 자격의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간한 연구서의 정의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자격을 정의한다. 논의에 앞서 일단 예술치료가 국내에서 정식 직업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2007년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직업 분류를 보면 예술치료사는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대분류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내 ‘중분류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소분류 및 세분류 24594. 음악 및 미술치료사’로 등재되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직무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원내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들이 새롭게 재구성한 직무체계를 보면, 미술치료사는 ‘중분류. 사회복지 - 소분류. 전문사회복지 - 직무. 의료 복지’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직업분류에는 어떤 예술치료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예술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인 지식기반서비스’에 포함된다.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문 인력에 의존적이고 국가 간의 장벽도 높은’ 서비스산업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 제도의 확대가 더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우리 나라 정부지출의 증가속도는 사회보험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빨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상담 전문가 등에 대한 인력수요가 전체 연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의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의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사업 내 자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비중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여 미래 지식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미흡하고,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다양한 주무부처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신설한 자격들은 사회 서비스 산업 내에서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신설·운영되는 민간자격은 단기간에 많은 자격종목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국가자격제도보다 탄력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산업 분류별 서비스산업의 자격 현황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목 수는 총 153개이다. 그 중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은 직업상담사 1,2급, 임상심리사 1, 2급 뿐이고, 개별법의 국가자격에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가 있다. 미술치료는 현재 등록 민간자격으로만 존재한다.

민간자격의 경우, 동일한 성격 또는 동일한 명칭의 자격이라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자격의 등급이 다르게 구분된다. 단순히 자격종목의 등급을 구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내용이나 검정과목, 응시자격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고 있어’ 자격을 준비하는 수험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직무내용이나 자격검정의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탓에 ‘자격 취득 후 전문인력이 현장에 나가 자격을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과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담당자들이 자격 수준의 차이로 인해 예술치료 자체의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명칭도 처음에는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한 가지로 통하다가 차츰 유사한 여러 이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술치료사 자격 신설초기에는 치료사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07년부터 소관부처에서 치료라는 용어 사용을 금하고 있어 기존에 운영되던 민간자격 명칭에서 치료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자격 중 치료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자격 중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뿐이고, 민간자격 중에는 특수체육치료사가 유일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자격의 참여금지에는 크게 분야 전체를 제한하는 경우와 명칭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의 금지비율이 타 주무기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74.1%로 가장 높고, 치료나 요법, 테라피 등의 직무를 유사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관련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미술치료 한 분야만 보더라도 현재 72개의 단체가 ‘미술심리상담사, 가족미술심리상담사,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임상미술심리사,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재활미술교육사, 색채심리상담사, 특수발달미술교육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격증을 등록해 놓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고시를 보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치료서비스

사업에서 등록된 치료자격 활용근거는 있으나 실제 치료자격 등록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는 제도의 모순임이 분명하다.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를 규정해놓고 있는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나, 국가자격 신설 및 민간검정 금지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와 19조 등을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민간자격 신설에 장애가 되고 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규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차원에서의 규제보다는 정책 차원에서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민간자격관리 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자격증 소유자에게만 바우처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을 두니 어쩔 수 없이 민간자격기관들이 앞 다투어 등록을 하고 있는 형국이 벌어졌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데 자격을 검증받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에서 자격증 발급 기관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격 운영기관마다 자격요건의 편차도 크니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표준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치료분야의 자격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과 검정수준의 난이도가 필요한데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이 이 분야 자격종목의 직무수행 요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설정하거나 자격시험을 실시하니 자격이 남발되고 있다.”

마침내 교육과학기술부는 무분별한 민간자격으로 인한 거짓광고와 허위사실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고지된 민간자격관련 주의 및 공지사항을 보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번호 표시 의무),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자격신설의 규제나 제한이 심하지 않다. 미술치료의 경우 영국은 영국미술치료협회(BAAT)에서 치료사를 양성하고 있고, 1997년부터 영국에서는 미술치료사가 국가공인자격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술치료사가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100여개)에서 정식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사례’가 있다.



미술치료 분야에 국한해서 미국의 자격관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미술치료사 자격증은 미국미술치료협회(AATA)에서 독립한 미술치료자격위원회(Art Therapy Credentials Board, Inc.)에서 자격 검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991년 AATA 연례회의에서 미술치료 자격 증명 계획을 3년 안에 구축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로써 독립된 비영리기관인 ATCB가 설립되었다.

미국 미술치료사 자격은 AATA에서 승인받은 미술치료대학원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학위 취득 후 미술치료를 이용하여 내담자와 직접 작업한 시간이 1,000시간 이상 되고 그에 대해 100시간의 임상감독을 받았다면 ATCB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ATR(Art Therapy Registered) 자격을 준다. ATR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시험(ATCBE)을 보아 통과하면 ATR-BC라는 자격을 얻는다. ATCS(Art Therapy Certified Supervisor)는 임상감독자로서의 자격인데, ATR-BC 자격을 최소 1년 전에 갖춘 사람이 석사 수준의 과정에서 ‘임상감독 교육’을 3학기 이상 받았거나 임상감독 분야에서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감독자를 100시간 이상 임상감독을 해주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다.

미술치료사 자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학력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임상경력이다. 치료 시간 수는 자신이 일한 현장의 담당자를 통해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임상감독을 받은 경험이다. 그 역시 임상감독자를 통해 서류상으로 시간 수를 입증해야 한다. 100시간의 임상감독 시간 중 50시간은 ATR이나 ATR-BC 자격이 있는 미술치료사에게 받아야 하고, 남은 50시간은 미술치료나 사회복지, 심리학, 중독 상담, 정신과간호, 정신의학 관련 석사학위를 따고 다른 면허를 따거나 다른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가에게 받아도 된다. 어느 경우나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정해진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 외에 관련자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받아 ATCB에 제출해야 한다. AATA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술치료 교육 과정 졸업자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고 AATA가 요구하는 미술치료 교육 기준을 만족한 사람들은 위의 자격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은 미국과 같이 단일한 협회의 체계적인 관리도 없고 영국과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 이 상황에서 예술치료 분야를 민간자격 금지 분야로 설정하여 과잉 규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정책차원에서의 규제와 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미술치료사 민간자격 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에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등을 하나로 묶어 ‘치료사’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전공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형식이 아닌 임상시간을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1, 2, 3급의 세 등급으로 자격을 구분하며, 3급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은 장애와 심리, 교육, 아동학 등의 공통과목과 각 영역별 선택과목 중 하나를 택하게 하고 2차로 실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0년 연구에서는 자격종목의 신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지 쪽 신설자격으로 미술치료사를 거론한 바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특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능력 인정 필요성, 일자리 가능성’을 신설 기준으로 삼고 조사를 해보니,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사, 놀이치료사, 음악치료사, 가족사회복지사 등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34개 신설자격들과 비교했을 때 미술치료사가 적합성 조사 결과 4.0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서비스 요구도는 놀이치료사 다음으로 높은 3.94, 직무전문성은 음악치료사 다음으로 높은 4.14, 능력인정 필요성은 4.24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가능성도 3.67로 가장 높았다.

예술치료사와 같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되고 있는 자격 종목은 행정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규제이기 때문에 다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의 교육과정에는 치료사 과정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및 자격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라는 용어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자격발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력양성의 큰 틀을 무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각에서 민간자격을 바라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 신설은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향후 국가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활용을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취업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해야 하는 데다 한번 만들어지면 통합, 폐지에 대한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반면 민간자격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하면서 취업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설, 통합, 폐지 등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술치료의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치료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면 국가자격으로의 자격신설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방법이다.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더라도 전문 분야별 학회 및 협회, 단체 등을 통하여 전문 분야별 자격증의 응시자격, 수준, 자격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출받아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시 고려하도록 하여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민간자격종목

및 검정기관 난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2) 예술치유 관련 자격증 현황

### 1) 대한예술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음악예술심리사지도사 미술예술심리사지도사
종류	전문, 1급, 2급
기준	-전문 1급 자격증 소지 후 전문가 과정 교육 이수자, 관련 및 상담분야 학사 이상, 본 협회 회원 3년 이상, (1,2급포함)1500시간 교육, 임상 710시간, 슈퍼비전 5회, 사례발표 1회 -1급 2급 자격증 소지 후 본 협회 1급 과정 수, 관련 및 상담 분야의학위가 있는 자,본 협회 회원 2년 이상인 자, 교육시간(2급포함) 1000시간, 임상 530시간, 슈퍼비전 3회이상, 임상사례보고서 제출 -2급 예술심리지도사 2급 과정 수료, 본 협회 회원가입자, 교육시간 180시간, 임상 350시간, 슈퍼비전 1회이상, 임상사례보고서 제출 *자격유지 협회에서 인증한 세미나, 워크샵, 학술대회등 년 1회(20시간)이상 교육이수 (타 기관 참가 인증)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전문학사 이상
학교 연계	수성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프로그램명	예술치료사 1급, 2급 자격연수

### 2) 한국아동청소년예술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모래놀이상담사, 청소년리더십지도사, 학습코칭
종류	전문, 1급, 2급, 3급
기준	-전문 석사학위 이상, 5년수련이상, 임상 1000시간, 슈퍼비전 (개인-30시간, 집단-20시간), 연구자료발표 년 2회 -1급 학사이상의 학력, 교육 심화과정 60시간, 임상 300시간, 슈퍼비전 개인 30시간, 보수교육, 세미나, 개인탐색, 사례논문 및 발표 -2급 전문학사 이상, 교육과정 130시간 이수, 임상 45시간, 특강 30시간, 슈퍼비전 개인 20시간 -3급 교육과정 초급(40시간), 중급(40시간), 고급(40시간), 특강 10시간, 슈퍼비전 10시간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각 과정별 유지보수 프로그램 보유
프로그램명	각 과정별 초급, 중급, 고급, 임상, 심화 교육프로그램

### 3)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예술심리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기준	<p>-수련감독: 학회 정회원, 전문자격 3년 이상, 심화 과정을 80시간이상, 학술대회에 40시간이상, 월례 사례 발표 세미나에 70시간 이상,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 발표회에 200시간 이상 참가한 자</p> <p>-전문 관련분야의 박사, 대학이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및 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자격 관련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현저한 연구 업적 및 임상 경력을 가진 자, 학회 정회원, 1급 자격취득 2년 이상, 80시간 이상의 자격심화연수에 참가한 자, 학술대회에 30시간 이상,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각 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에 170시간 이상 참가한 자, 임상실습-개인 250시간, 슈퍼비전-100시간, 단독 논문 1편, 세미나 1회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p> <p>-1급: 학회의 정회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학원에서 예술심리치료 관련학과(전공)에서 3학기 재학이상 인자 또는, 관련학과(전공)를 졸업하고 예술심리치료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자, 기본연수에 160시간이상 참가한 자 (단,[예술심리치료사2급]자격소지자는 제외함), 학술대회에 20시간이상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30시간 이상 참가한 자,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에 140시간 이상, 임상 개인-100시간 이상, 월례 사례 발표 세미나에 1회 이상 발표 한 자</p> <p>-2급: 학회의 정회원, 대학의 3학년 이상에서 예술치료, 심리치료, 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분야를 전공 한 자, 기본 연수에 160시간 이상 참가 한 자, 학술대회에 20시간 이상, 본 학회 월례 사례 발표 세미나에 20시간 이상,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에 80시간 이상 참가 한 자</p>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각 과정 별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프로그램명	심화과정

### 4) 한국예술치료사협회

자격 사항	
명칭	음악치료사

종류	아동전문, 노인전문, 수련감독, 1급, 2급
기준	자료 비협조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로 기초, 전문과정 및 인턴실습과정의 3단계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
학교연계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과 협약

##### 5) 한국예술치료사협회

자격 사항	
명칭	예술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기준	<p>-수련감독 전문가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강의 및 관련 임상 2년 이상, 임상 개인-20시간, 전문가에서 교육 분석 20시간, 학회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학술지 1회 이상 논문 발표, 저서 및 역서</p> <p>-전문가 정회원 2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 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임상경력자(임상1000시간 이상, 임상감독 개인-15시간, 집단-15시간),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p> <p>-1급 정회원 2년 이상, 학사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연계학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로서 아래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임상 300시간 - 임상기관의 임상확인서 제출, 임상감독 개인-15시간, 단체 15시간),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각 지부에서의 학술활동 30시간 포함).</p> <p>-2급 정회원 이상 1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 예술치료 임상 200시간 이상, 임상감독 (본 학회 예술치료수련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전문가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집단15시간+개인15시간) 이수한 자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각 지부에서의 학술활동 30시간 포함)</p>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미술치료사 보수교육
학교 연계	부산여자대학,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광주대학교, 동강대학교, 삼육대학교,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단기교육과정

6) 한국예술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무용동작치료사, 연극치료사
종류	1급, 2급
기준	-1급 한국예술치료협회에서 발급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로서, 1,000 시간 이상의 임상을 필한 자 -2급 학생 및 일반인,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 등, 초급, 중급, 고급, 심화까지 이수 후 협회 임상 기준을 통과한 자
재교육프로그램유무	음악치료사 1급, 2급 소지자 보수교육 있음
프로그램명	음악, 미술치료사 1급, 2급 과정

7) 한국임상치유예술학회

자격 사항	
명칭	예술심리상담사
종류	전문, 1급, 2급
기준	-전문 정회원 2년 이상, 석사 학위 이상 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임상 경력자 (임상 1000시간 이상, 임상 감독 개인-15시간, 집단-15시간),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학회지 또는, 월례 학술 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 분야 저서가 있는 자 -1급 관련분야 석사 이상 또는 예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3년 이상 예술심리상담분야에 종사한 자에게 수여하며 자격증 취득(임상 500시간 이상, 학회, 연구소, 세미나, 워크샵 기타 활동 200 시간까지 임상교육시간으로 인정-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샵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슈퍼비전 12회 이상사례발표에 2회 이상, -2급 전문대학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임상-병원, 연구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300시간 이상, 예술치료 관련 학회, 연구소, 세미나, 워크샵 기타 활동에 참가한 경우 200 시간까지 임상교육시간으로 인정-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워크샵 50시간 이상을 이수 슈퍼비전 6회 이상, 사례발표에 1회 이상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모든 자격증 소지자 보수교육

## 8) 한국통합예술심리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원예상담사, 모넨놀이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종류	1급, 2급, 3급
기준	-1급 2급 자격 소지자, 필기60점 이상, 임상실습 15시간 12회기 이상 통과, 미술심리치료이론, 진단 및 치료기법, 임상실습 -2급 3급 자격 소지자, 필기60점 이상, 모의치료 보고서 통과, 미술심리치료이론, 진단, 치료기법, 모의 실습 -3급 고졸 이상, 필기60점 이상, 진단검사 과제 통과, 미술심리치료이론, 진단, 치료기법, 진단 검사 보고서
프로그램명	만다라심리치료사 전문 강사 교육 과정

## 9) 한국통합예술치료상담학회

자격 사항	
명칭	통합예술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1급, 2급
기준	-수련감독 예술치료 및 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1급 통합예술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학회의 수련감독 통합예술치료사로 부터 3년 이상 본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 시험과 자격심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인준 절차를 거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개인 예술치료 20사례이상, 총 200회기 이상, 집단 예술치료 총 1,000 시간 이상, 리더 또는 보조리더 : 10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진행, 참여경험 : 10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600시간 이상 참여, 공개사례발표 : 월례회, 예술치료사례모임에서 개인치료 4차례 이상, 총 40회기 이상, 지도감독(수퍼비전), 개인 예술치료 : 개인치료 30 회 이상(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집단 예술치료 : 4집단 이상 (총 40시간 이상), 연구활동 : 본 학회지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공동저작 100%인정) 이상의 연구 논문 또는 저서 (1인-100%, 2인-70%, 3인-50%, 4인-30%), 학술 : 월례회, 학술대회, 학회주관 워크숍에서 예술 치료 관련 학술발표 10회 이상 참여 -1급 예술치료 및 상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2급 통합예술치료사로 본 학회의 수련감독 통합예술치료사의 감독 아래서 학회 규정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에 합격한 후, 본 학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개인 예술치료 10사례이상, 총 100회기 이상, 집단 예술치료 총 700시간 이상, 리더 또는 보조리더 : 7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진행, 참여경험 : 7개 집단 이상 총 400시간 이상 참여, 공개사례발표 : 월례회, 예술치료사례모임에서 개인치료 2차례 이상 발표(총 20회기 이상), 지도감독(수퍼비전) {(개인 예술치료 : 개인치료 10회 이상(공개사례

	<p>발표 2회 포함)), (집단 예술치료 : 2집단이상 (총 30시간 이상))  , 학술 : 월례회, 학술대회, 학회주관 워크숍에서 예술치료 관련 학술발표에 5회이상 참여  -2급 통합예술치료사  예술치료 및 상담 관련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 통합예술치료사의 감독 아래 본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에 합격 후, 본 학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개인 예술치료 5사례이상, 총 60회기 이상, 집단 예술치료 총 400시간 이상, 리더 또는 보조리더 : 3개 집단 이상(집단별 8시간 이상) 진행 , 참여경험 : 3개 집단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참여, 공개사례발표참여 : 월례회, 예술치료사례모임에서 총 5회기 이상 참여, 지도감독(수퍼비전)(개인 예술치료 : 개인치료 4회 이상, 집단 예술치료 : 1집단이상 (총 10시간 이상), 학술 : 월례회, 학술대회, 학회주관 워크숍에서 예술치료 관련 학술발표에 3회 이상 참여</p>
프로그램명	통합예술치료사 자격 과정

#### 10)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예술심리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기준	<p>-수련감독  협회 정회원, 박사 학위 이상 또는 전문예술심리치료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전문 취득 후 임상감독자로서 임상감독 경험 50시간, 사례발표 2회 진행, 전문 취득 후 본 학회지에 논문 1편 게재, 교육특강 5시간 및 치료사 교육 경험 200시간,  -전문  협회 정회원,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내자격에 준하는 국외자격 취득, 1급 교육시간 이외에 교육 250시간 추가 이수, 확인서 제출, 임상교육감독을 병행한 2000시간 이상의 예술치료 임상실습, 개별 30시간 집단 60시간, 주치 사례발표 5회(10시간) 이수, 협회 주치 특강, 학술대회, 매체연구를 모두 합하여 10시간 교육이수하고 확인서 제출  -1급  협회 정회원, 학사 이상의 학력, 2급 이외에 교육 80시간 추가 이수, 임상교육 700시간 이상의 예술치료 임상실습, 개별 10회기의 임상사례, 1회이상의 개별임상감독 받아야 함, 2급 취득 후 개별교육감독 20시간, 집단교육감독 30시간, 협회 주치 사례발표 5회(10시간) 이수, 사례논문 1회, 특강, 학술대회, 매체연구를 모두 합하여 10시간 교육이수하고 확인서 제출  -2급  협회 정회원, 전문학사 이상, 1~6단계의 교육 270시간 이수, 임상교육감독을 병행 300시간 이상의 예술심리치료(코리더 20시간 필수), 개별 교육감독(10시간, 집단 교육감독 20시간), 주치 사례발표 5회(10시간)이수, 주치 특강, 학술대회, 매체연구를 모두 합하여 10시간 이수</p>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자격유지 서류제출 및 교육



프로그램명	미술놀이치료/동작소리연극치료 기타다수
-------	----------------------

## 11) 대한문학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문학치료사, 대한문학치료사
종류	1급, 2급
기준	<p>-1급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로서 아래 2항, 3항의 자격을 갖춘 자(임상 300시간 - 임상기관의 임상확인서 제출,임상감독 개인-15시간, 단체 15시간),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각 지부에서의 학술활동 30시간 포함)</p> <p>전문(1급): 문학치료사 자격 취득 후,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문학치료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1회의 사례 발표 또는 문학치료연구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외국에서 문학치료 전문가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련과정을 거친 자로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p> <p>문학치료사(2급) 정회원, 문학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필기시험 5과목(문학개론/아동·청소년 문학/상다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심리검사/문학치료기법)을 기 이수한 자, 혹은, 문학치료학과 석사수료자 이상, 문학치료 프로그램 8회기 이상, 3세션을 임상한 자로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수련시간을 60시간 이상 수련한 자로 한다.)</p> <p>문학치료 수련자(3급) 준회원 이상, 문학치료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혹은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명시된 된 과목을 이수,</p>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전문학사 이상
학교 연계	경북대학교

## 12)세계독서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독서심리상담사
종류	전문, 1급, 2급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협의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학교 연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명	독서치료사 초급, 중급반

### 13)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독서치료사
종류	전문, 1급, 2급
기준	<p>-전문 협회 정회원 이상, 석사학위 이상, 독서치료, 문학, 심리학분야의 인론시간 각 60시간 이상씩 이수한 자 관련이론-180시간, 실습-225시간, 실습-70시간, 단체-45시간, 기관실습-90시간, 심화과정-100시간</p> <p>-1급 2급 자격 취득 후 수련시간 총 180시간을 거친 후 면접을 통과한 후 독서치료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p> <p>-2급 한국독서치료학회 준회원 이상(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독서치료 분야, 문학분야, 심리학분야에서 이론 시간 각 45시간 이상씩 이수한 자 개인/집단 대상 발달적 독서상담/치료와 의료기관의 보조치료사로서의 임상적 독서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독서치료사 자격취득과정이다 본 학회주관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을 통과한 후 독서치료사 2급 취득한다. 합격기준 : 과목별 70점 이상</p> <p>1급, 2급 관련 이론-135시간, 실습-90시간, 실습훈련-45시간, 단체-45시간</p>
교육여부	전문학사 이상
프로그램명	독서치료사, 도서치료전문가 교육과정

### 14) 한국독서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독서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기준	<p>-수련감독 정회원 이상 1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치료관련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자, 예술치료 임상 200시간 이상, 임상감독 (본 학회 예술치료수련전문가 또는 예술치료사 전문가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집단15시간+개인15시간) 이수한 자</p> <p>-전문 독서치료사 1급 소지자, 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독서치료진단-집단지도60시간 이상, 사례발표회-참석 5회 이상(발표 2회 포함), 집단연수회-참석 2회 이상, 슈퍼비전-총50시간(개인수퍼비전 15시간+집단 수퍼비전35시간) *수련감독 2인 이상</p> <p>-1급 독서치료사2급 소지자, 상담관련 석사학위소지자, 실제 교육과정-독서치료 기법의 실제 45시간, 독서치료집단-참석 1회 이상, 사례발표회-참석 2회 이상(발표 2회), 집단연수회-참석 1회 이상, 수퍼비전-10시간(개인,</p>

	집단 통합) -2급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상담관련 학부 재학 중 학생, 교육과정(이론-독서 치료관련 이론 45시간, 실제-독서치료관련 실제45시간), 독서치료집단- 집단참여자 경험 20시간 이상, 집단연수회-참석 1회 이상
교육여부	사전 교육 및 학사 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보수 교육 있음
프로그램명	독서치료사 2급 과정

#### 15) 한국문학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문학치료사, 문학치료전문가
종류	최고전문가, 1급, 2급, 3급
기준	-1급 국어국문학 관련학과 및 상담과 심리치료 관련학과 학부 2학년 과정 수료자 이상
프로그램명	문학치료사 1급 양성 과정

#### 16) 한국발달독서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독서심리지도사
종류	master
기준	-독서심리지도사 본회의 준회원, 학사학위 이상, 전문학사 또는 초대졸 이상의 학력 인정 자 중 본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간호면허증,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심리 상담사, 독서, 논술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소유한 자이거나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력의 예외조항(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장으로 3년 이 상의 경력자), 본회에서 주관하는 독서심리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람
교육여부	학사 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연 4회의 보수교육 (정기 및 특별세미나)참석
프로그램명	독서심리지도사 자격증반

#### 17)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문학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일반
기준	-문학치료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문학치료분야에서 상당한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전문 문학치료사 대학원에서 문학치료학을 전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임상 경험과 정신의학, 심리학, 문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수련감독 [전문 문학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 등을 거친 후에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교육여부	학사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재교육 과정 이수
프로그램명	슈퍼바이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 18)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임상미술치료사
종류	전문, 1급, 2급
기준	-전문 1급 자격증 취득 후, 심화과정 80시간, 학술대회 30시간 이상, 학회주관 월례회 및 워크숍 100시간 이상, 임상시간 1000시간, 슈퍼비전 40시간, 사례발표 2회 이상 -1급 2급 취득 후 1급 교육과정 수료 후 임상 500시간, 슈퍼비전 20시간, 사례발표 1회 이상, 학술대회 20시간을 이수한 자 -2급 2급 교육과정 수료 후 임상 50시간 및 슈퍼비전 6시간, 학술대회 10시간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
교육여부	별도의 학력 요구하지 않음
재교육프로그램유무	신경재활 및 심리학 등 보수교육
프로그램명	임상미술치료사 1급, 2급, 교육과정

#### 19)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심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3급
기준	-수련감독: 세미나,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상담행사에서 2회의 사례발표, 논문 2편 게재 -전문 미술심리상담사 1급 취득 한 자로서, 세미나,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상담행사 1회 사례발표 한국미술 심리상담협회지에 논문 1편 게재, *예외: 외국에서 임상미술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친 자, 또는 대학의 정. 부교수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임상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실적이 있는 자

	-1급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세미나, 학술대회 및 연수등에 참가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수련등을 거친 자 심의를 통해서 1급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급, 3급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자격 연수 등에 참가하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든 거친 후 심의를 거쳐 2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교육여부	별도의 학력을 요구하지 않음
프로그램명	각 자격증 별로 1,2,3급의 교육과정 보유

## 20)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치료사,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치료사
기준	-수련감독 세미나, 학술대회 2회의 사례발표, 논문 2편 게재,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 심의를 거쳐서 자격증 부여 -전문가 세미나, 학술대회 1회의 사례발표, 논문 1편 게재,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 심의를 거쳐서 자격증 부여 -일반 관련전공자 학사학위 이상의 가진자,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받은 자,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 심의를 거쳐서 자격증 부여
교육여부	학사 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치료사 자격갱신 및 전문가 보수 교육

## 21) 한국사진심리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사진심리치료사
종류	1급, 2급, 3급
기준	-1급 박사급 수준의 학위, 석사학위 및 수년간 임상경험 -2급 사진심리치료학 관련 석사학위 호은 학사학위 와 1년간 사진심리치료 임상, 사진심리치료학 전문학사와 2년간 사진심리치료임상, 사진심리치료외 학사학위와 2년간 임상 -3급 사진심리치료학 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사진심리치료학 외 전문학사 이상 2년간 임상
교육여부	전문 학사 이상
프로그램명	사진심리치료사 자격증 과정

## 22) 한국사진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사진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1급, 2급
기준	-수련감독 학원에서 심리(임상 및 상담 기타분야), 교육, 정신보건, 사회복지, 예술 치료, 영상 및 사진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박사이상, 상담수련 700시간 (500시간+ 상담수련 200시간) -1급 상담관련 및 사진 관련 석사이상 -2급 상담관련 및 사진 관련 학사 또는 초대졸 이상
교육여부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최소 3년에 1회 이상 보수 교육 받아야 자격 유지

## 23) 한국사회복지미술치료사협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심리상담사, 사회복지미술치료사
종류	1급, 2급
기준	-1급 관련학 전공, 미술치료교육 이수과목 120시간, workshop 60시간이상, 임상실습 20시간이상, 개인 : 12회기이상 집단 : 8회기 이상, 슈퍼비전 3회 기준
재교육프로그램	워크샵 20시간 이수 후 자격 유지 가능
학교 연계	송실대학교
프로그램명	각 과정별 교육 과정 보유

## 24) 한국색채심리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색채미술심리상담가, 색채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3급
기준	-수련감독 대학원에서 색채 및 미술치료, 심리학, 의학, 상담, 가족, 아동, 재활, 사회복지,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 이상 본회가 주관하는 「색채미술심리상담연구」에 논문 2편 게재 -전문 색채심리상담사와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색채미술심리상담연구지에 논문 1편 게재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여부	석사 학위 위상
재교육프로그램	3년마다 자격 갱신, 보수교육 있음

학교 연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과 MOU 체결
프로그램명	색채미술심리 1급 보수교육

## 25) 한국색채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색채심리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3급
기준	<p>-수련감독 색채심리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세미나,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색채치료협회에서 논문 2편 게재 수련 및 심의 후 자격증 부여</p> <p>-전문 색채심리치료사 취득한 자 세미나,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상담행사에서 1회 논문 게재 수련 및 심의 후 자격증 부여</p> <p>*예외 외국에서 임상색채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수련과정 거친 자 대학의 정, 부교수 석,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임상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실적이 있는 자</p> <p>-색채심리치료사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연수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 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 자격증 부여</p>
재교육프로그램	색채심리치료전문가, 수련감독은 매년 5년마다 자격 갱신
학교 연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프로그램명	색채심리치료사 1급, 2급, 3급

## 26) 한국아동미술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심리상담사
종류	1급, 2급, 3급
기준	<p>-1급 미술심리상담사 2급을 합격한자 교과목 8과목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의 승급 연수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 워크샵 등의 학술행사에 2회 이상 참 석한 자.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 300시간 이상 수료자를 말한다.</p> <p>-2급 미술심리상담사 3급을 합격한자 교과목 8과목을 이수 후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 습을 수료한 자를 말한다.</p> <p>-3급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미술심리상담 관련 교과목 7과목을 이수 후 검정시험에 통과한 자.</p>

교육여부	전문대학 이상
학교 연계	수성대학교

## 27)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심리상담사
종류	수련감독관 위촉, 전문, 1급, 2급, 3급
기준	-수련감독관 위촉 미술치료전문가 취득한 자,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학술대회 2회 발표, 논문 2편 -전문 1급 취득한 자, 세미나, 미술치료행사 및 학술대회 1회 사례, 논문 1편 -1급, 2급, 3급 협회 주관 교육과정 500, 300, 80이수
재교육프로그램	특강식의 보수교육
프로그램명	미술심리상담사 1,2급 교육과정

## 28) 한국임상미술심리사협회

자격 사항	
명칭	임상미술심리사
종류	전문, 1급, 2급
기준	-전문 관련학과 학사이상인 자에 임상미술심리사 1급 취득 후 경력 2년이 경과한 자, 관련전공 석사이상인 자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 교육 및 임상실습을 6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례보고서(집단, 개별) 3편을 제출한 자. 관련학과 박사수료 이상이며, 관련학회에 미술심리상담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무시험 전형으로 응시 가능), 임상사례 및 슈퍼비전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사례보고서 3편을 제출한 자. 워크숍 280시간 이상, 사례(관찰 및 개별 진행)-150시간이상, 사례 슈퍼비전 -1급 관련학과 학사이상인 자에 임상미술심리사 2급 취득 후 경력 2년이 경과한 자, 관련전공 석사이상인 자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 교육 및 임상실습을 4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례보고서(집단, 개별) 2편을 제출한 자. 비관련학과 학사 소지자 중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 집단미술치료 -20시간 이상, 미술치료 관련 워크숍- 80시간 이상, 미술치료 사례(관찰 및 개별 진행) -150시간 이상 (사례보고서 2편 제출) 사례 슈퍼비전



	-2급 관련학과 3학년(전문학사)이상인 자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 교육 및 임상실습을 300시간 이상(과정내용 참조) 이수하고, 사례보고서 1편을 제출한 자. 비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자 중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
프로그램명	임상미술심리사 2급 자격과정

## 29) 한국임상미술심리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임상미술심리사
종류	전문, 1급, 2급
기준	-전문가 1급 소지자, 학회 10회 참석, 임상감독 40시간, 2회이상 논문발표/ -1급 자격증 과정 100시간 이수, 세미나 10회이상, 임상실습시간 총 500시간, 슈퍼비전 30시간 논문 1회이상/ -2급 과정 100시간 이수, 시험통과, 세미나 5회 참석, 슈퍼비전 20시간, 임상실습 시간 200시간
교육여부	과정별 교육 과정 포함
프로그램명	놀이치료사 자격증 교육과정

## 30) 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종류	1급, 2급
기준	-1급 관련학과 학사 이상인 자로서 임상미술심리사 2급 취득 후 경력 6개월이 경과한 자 관련전공 석사 이상인 자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교육 및 임상실습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사례보고서 1편(집단사례1, 개인사례1)을 제출한 자 비관련학과 학사 이상인 자로 임상미술발달심리사 2급 취득 후 경력 1년이 경과한 자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경력 1년 이상인 자 -2급 2급 자격 취득과정에서 1단계에 한해서는 본 법인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단계과정의 내용 60시간을 이수하거나 한국미술치료학회의 미술치료사 이상인 자에게서 1단계 과정의 내용을 이수한 자,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1단계 과정의 내용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60시간 미만은 관련특강이나 재수강을 해야 함)는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다. 1단계 과정에 한해서는 대학원 미술치료전공, 3학기 이상일 경우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상사례 슈퍼비전 의뢰 대상자는 1단계, 2단계와 3단계의 임상사례 발표 및 토론 이수자에 한한다. 임상사례는 각자 개별적으로 대상 선정 후 슈퍼비전을 신청하여 임상 미술심리상담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은 후 사례진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프로그램명	1급, 2급 연수 프로그램

### 31)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임상지도 감독자, 미술치료사
종류	
기준	-임상지도: 석사이상, 1급 취득 후 세미나, 학술대회에서 2 회의 사례발표, 논문 2편 게재, 슈퍼비전을 30시간 이수한 자 -1급 2급 소지자, 1급 과정 이수 후, 임상실습 500시간 후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20시간 이상 받은 자 또는 외국 자격증 취득 후 슈퍼바이저가 20시간 이상 슈퍼비전을 받은 자 또는 석사 이상 학회에서 1회 이상의 사례 발표 후 슈퍼비전 받은 자 -2급 미술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미술치료사 기본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통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임상실습 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
교육여부	학사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미술치료사 보수교육
프로그램명	미술치료사 1급, 2급 교육과정

### 32) 한국치매미술협회

자격 사항	
명칭	치매미술전문치료사, 건강미술요법사
프로그램명	치매미술치료사, 건강미술요법사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33) 한국통합미술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심리상담사
종류	1급, 2급
기준	이론90시간 이상 - 기초수업, 심화수업, 방학특강2회수업을 수강하면

	96시간으로 이론시험 자격이 됩니다. 실기시험 - 임상실습과 사례 논문 제출 합격(담당교수평가)
--	--

#### 34) 고신음악심리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음악중재전문가, 음악심리지도사, 뮤직쿱, 발달심리평가사
종류	1급, 2급, 3급
기준	-음악중재전문가 1급 석사졸업 이상 -음악중재전문가 2급 석사수료 이상 -음악중재전문가 3급 학사졸업 이상 -음악심리지도사 1급 국가인정 교육기관에서 음악치료 관련 36시간 본 기관에서 실습 36시간 이수,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음악심리지도사 2급 국가인정 교육기관에서 음악치료 관련 36시간 본 기관에서 실습 36시간 이수,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음악심리지도사 3급 국가인정 교육기관에서 음악치료 관련 30시간 본 기관에서 실습 36시간 이수, 3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뮤직쿱 저능자 석사졸업 이상, 뮤직쿱 전문가 임상경력 3년이상 -뮤직쿱 1급 뮤직쿱 세미나 72시간 이수, 인턴쉽 12시간 이수 -뮤직쿱 2급 뮤직쿱 세미나 36시간 이수 -뮤직쿱 3급 뮤직쿱 세미나 12시간 이수
발급현황	
소지자 관리현황	-음악중재전문가 5년마다 갱신 -음악심리지도사 3년마다 갱신 -뮤직쿱 1년마다 갱신
교육여부	학사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유무	-음악중재전문가 보수교육( 5년간 40시간 이상) -음악심리지도사 보수교육 6시간 이상
프로그램명	뮤직쿱전문가3급자격증과정, 음악치료사3급자격증과정, 뮤직쿱전문가2급자격증과정, 발달심리평가사3급자격증과정

### 35) 대한음악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음악치료사
종류	1급, 2급
기준	-1급 2급이상 자격소지자 및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2급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심리학 전공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교육여부	학사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보수교육 3년동안 20점 이수 보수교육 1회 10점, 세미나 15점 등
프로그램명	음악치료사 1급, 2급 세미나 과정, 음악심리지도사 과정

### 36)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자격 사항	
명칭	음악중재전문가(KCMT)
기준	음악치료 전공(학사, 석사)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본 학회 정회원 인턴쉽 1000시간 이상 수료자
교육여부	학사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유무	연간 2회(1월, 7월) 총 32시간 보수교육
학교 연계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37) 한국음악치료사협회

자격사항	
명칭	음악심리지도사,
종류	아동, 청소년, 노인, 1급, 2급, 3급
기준	-1급 석사이상 소지자, 2급 자격 취득자 -2급 전문 학사 이상, 3급 자격 취득자 -3급 고졸, 일반인 70학점 수료자도 가능 *아동, 청소년, 노인도 위와 동일
소지자 관리현황	자격증 갱신
교육여부	고졸 학력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2년마다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필요
프로그램명	음악심리지도사 (1급, 2급, 3급, 아동, 청소년 노인) 자격 과정

### 38) 한국음악치료임상응용학회

자격 사항	
명칭	음악심리상담사
종류	임상감독, 전문, 1급, 2급
기준	<p>-임상감독 5년 이상의 임상, 전공 관련 강의 2년, 강의 시간 200시간 본 회에서 임명한 임상감독자에게 전문음악치료사 자격기간동안 총 96시간 이상 임상감독을 받은 자 학회의 이사진 삼사에 합격한 자</p> <p>-전문 1급 소지자, 3년간 임상사주 주 40시간 학회에서 임명한 전문음악치료사 및 임상감독자에게 40시간 이상 임상감독을 받은 자</p> <p>-1급 음악치료학 석사학위 이상, 임상 400시간, 인턴쉽 1040 이상 한국음악치료 임상응용학회 정회원 이상자</p> <p>-2급 관련전공 혹 평생교육원, 준회원 이상</p>
교육여부	학사학위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각 자격증 별 보수교육 있음

### 39) 한국음악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임상음악전문가
종류	1급, 2급, 준2급
기준	<p>-급 음악치료 전공 석사 이상학위, 1급 시험의 합격자, 임상실습 과정 수료, 교육과정 이수 2급 자격증 소지 후 1급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p> <p>-2급 음악치료 전공 석사 학위를 수료하고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음악치료 교육과정(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하고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함. 음악치료 준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함.</p> <p>-준2급 관련전공 전문 학사 이상, 관련 교육기관 교육과정 수료 후 준2급의 합격자</p>
소지자 관리현황	자격증 갱신 2년 마다
교육여부	전문 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5년간 300점 이상의 보수교육

램	(학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참여 및 국내외 관련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을 경우는 점수로 인정한다)
프로그램명	교육 및 실습 강사 자격 교육

#### 40)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재활음악전문가
종류	통합, 1급, 2급, 3급
기준	-2급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재활치료에 관심 있는 학생(4년제는 학부3년부터)
교육여부	전문학사 이상
프로그램명	재활음악치료사 1급, 2급, 3급

#### 41)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무용/동작심리치료사
종류	전문, 1급, 2급
기준	-전문 정회원, 석사학위, 임상 3000시간, 감독 48시간(2인 이상 전문치료사로부터 받음 익상감독, 24시간 집단임상감독 인정), 사례발표, 논문 심사 통과 -1급 학 회원, 학사학위, 기초과목 및 교육 이수 7과목, 임상 350시간, 감독 70시간(전문치료사로부터 30시간 집단임상감독 인정, 추후에는 본 학회 2인 이상의 전문치료사로부터 30시간이 필요) 발표+논문 심사통과 -2급 학회 등록자, 전문학사 취득 자, 심리치료 기초 3과목 이수, 무용/동작치료 교육 이수, 임상실습 300시간(코리더로 임상실습 참여 50시간 까지 인정) 임상감독(총 30시간) 1급 혹은 전문치료사로부터 받음 임상감독시간 인정, 개인임상감독 초소 15시간이상 되어야 함
교육여부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자격유지 조건 -무용/동작심리치료사 2급 ① 무용/동작심리치료사 2급은 3년 내 무용/동작심리치료 사례발표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연간 집단임상감독 10시간 이상 또는 개인임상감독 5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집단과 개인임상감독의 합산은 각각 50%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예시, 집단 5시간 이상, 개인 3시간 이상시 인정.) -무용/동작심리치료사 1급 ① 무용/동작심리치료사 1급은 3년 내 무용/동작심리치료 사례발표 2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연간 집단임상감독 10시간 이상 또는 개인임상감독 5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무용/동작심리치료 전문가 ① 무용/동작심리치료 전문가는 3년 내 무용/동작심리치료 사례발표 2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무용/동작심리치료 전문가는 5년 내 논문 2편 이상을 국내 혹은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다.
--	---

#### 42) 한국댄스테라피협회

자격 사항	
명칭	KDTA 공인무용/동작치료사
종류	RDT, ARDT
기준	-ARDT KDTA공인무용/동작치료전문가 석사학위 이상, RDT자격 거쳐 임상 최소 2000시간 이상, 논문 2편이상,워크숍 및 세미나 5회 이상, 슈퍼비전 24시간 석사이상 필수과목 이수, 워크숍, 세미나 60시간 이상 참석 등 -RDT KDTA 공인무용/동작치료사 무용/동작치료 전공 대학원졸업생으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 60시간이상 임상실습(700시간 이상) 및 무용치료 전문가의 슈퍼비전(그룹: 150시간 이상, 개인: 24시간 이상)을 하여야 한다.
발급현황	
소지자 관리현황	치료사 자격유지조건 ARDT 자격소지자는 교육(50점), 워크숍(50점), 슈퍼비전(20점), 논문 및 학술발표(100점)등의 시간이 최소한 2년간 200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3년 이상 이행치 않을 시에는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본 협회의 홈페이지와 지면에 통고된다. -RDT자격 유지조건 RDT 자격소지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2년 이상 이행치 않을 시에는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본 협회의 홈페이지와 지면에 통고된다. ① 연간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 워크숍을 1회 이상 이수한다. (개인사정으로 이수하지 못할 시 타 공인 기관 워크숍(집단상담, 학술회 등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② 연간 개인 1회, 그룹1회(RDT 단체 그룹 슈퍼비전)의 슈퍼비전을 받는다.
교육여부	석사학위 이상

#### 43) 한국춤테라피학회

자격 사항	
명칭	춤동작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전문, 1급, 2급
기준	-수련감독 세미나, 학술대회 2회이상 사례발표, 논문 2편 게재, 일정시간 연수

	-전문 1급 자격증 취득자, 세미나, 학술대회 2회이상 사례발표, 논문 1편 게재 -1급 2급 자격증 취득자 교육과정 이수자 -2급 자격교육 과정 이수자
소지자 관리현황	자격 유지 필요 1년 내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30시간 이상 참여 하여야한다. 1. 춤·동작치료사는2년내 춤. 동작치료 사례발표를 1회 이상하여야한다. 2. 춤·동작치료전문가는3년내 춤. 동작치료사례발표를2회이상, 논문 1편 이상을 춤테라피 학회지에 게재 하여야한다. 3. 수련감독 춤·동작치료사는 5년내 논문 2편 이상을 춤테라피학회지에 게재 하여야한다.
교육여부	사전 교육 과정 필요
프로그램명	Alternate DMT과정

#### 44) 한국드라마테라피스트협회

자격 사항	
명칭	임상드라마심리전문가
종류	전문, 1급, 2급, 3급
프로그램명	아카데미 치료사 교육과정

#### 45) 한국연극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연극심리상담사
종류	1급, 2급
기준	-1급 (사)한국연극치료협회 주관하는 양성과정의 연극심리상담사 1, 2급(6학기)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 임상실습 360시간을 이수한 자 (사)한국연극치료협회가 주관하는 2급 자격증시험(슈퍼비전, 구술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사)한국연극치료협회가 주최하는 워크숍을 수료한 자 -2급 사)한국연극치료협회 주관하는 양성과정의 연극심리상담사 2급(3학기)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 임상실습 180시간을 이수한 자(20시간 이상은 주강사로 활동해야 함) (사)한국연극치료협회가 주최하는 워크숍을 수료한 자 각 단계별 과제를 모두 제출한 자 ※ 2급(3학기) 과정 수료 후 학기 초과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임상실습 시간 1학기당 20시간(주강사 5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함.
소지자	갱신 교육과정 10시간, 갱신 시험 합격



관리현황	
교육여부	사전 교육 필요
프로그램명	연극심리상담사 자격과정

#### 46) 공연예술치료협회

자격 사항	
명칭	공연예술치료사
종류	전문, 1급
기준	1급소지자, 심화교육200시간, 소논문작성, 임상500시간, 슈퍼비전20시간, 검정합격자
프로그램명	공연예술치료사 1급 과정

#### 47) 한국 Art & Play 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미술과놀이심리상담사
종류	1급, 2급, 3급
기준	-1급 본 학회 회원, 관련학 석사이상 -2급 본 학회 회원, 관련학 학사이상 -3급 본 학회 회원, 전문학사(전공무관)이상,관련학2학년수료자
소지자 관리현황	4년마다 심리상담사 자격 갱신
교육여부	전문학사 이상
(재)교육프로그램 유무	매년 1회 이상의 보수교육 혹은 학술 심포지엄 참여

#### 48)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자격 사항	
명칭	영상영화치료사
종류	수련감독, 1급, 2급, 3급
기준	-전문 상담 관련 및 영상 영화 관련 박사이상, 본 학회의 1급 영상영화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1급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급 영상영화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p>상담관련 전공(상담심리, 임상심리, 사회복지, 정신의학, 정신간호, 교육학) 또는 영상영화 관련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당해 학기 수료 예정자 포함)</p> <p>상담관련 전공(상담심리, 임상심리, 사회복지, 정신의학, 정신간호, 교육학) 또는 영상영화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당해 학기 졸업 예정자 포함)</p> <p>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700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받은 자</p> <p>-2급</p> <p>2급 영상영화치료사는 본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p> <p>상담관련 전공(상담심리, 임상심리, 사회복지, 정신의학, 정신간호, 교육학) 또는 영상영화 관련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당해 학기 졸업 예정자 포함)</p> <p>상담관련 전공 및 영상영화 관련 전공자로서 상담관련 필수과목인 상담심리학과 집단상담, 선택영역인 심리검사 또는 진단, 집단상담, 학습 또는 발달, 성격 또는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등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씩, 총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을 수강한 자</p> <p>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400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받은 자</p> <p>-3급</p> <p>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당해 학기 졸업 예정자 포함)</p> <p>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자</p>
교육여부	전문학사 이상

### 3. 예술치유 관련 교과과정 현황

#### (1) 예술치유 관련 교과과정 현황 분석

예술치유 관련 교과과정 현황은 분야마다 양상이 매우 다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일찍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잘 조직화된 음악, 미술치료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풍부하나 다른 분야들의 경우 교과과정 자체가 많은 고민과 시도 중에 있다고 보여진다.

국내 미술치료 교육의 역사는 예술치유 관련 교과과정 전반에 대해서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1992년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미술치료 관련 학회로서 처음 창립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식 학위과정으로는 1998년 대구대학교 석사과정에 미술치료 전공이 처음 개설되었고, 2000년 영남대학교에도 석사과정이 생겼다. 서울에서는 1999년 한국표현예술치료협회가 창립되면서 같은 해 원광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에 석사과정이 만들어졌다. 2002년에는 명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2003년에는 동국대학교에 석사과정이 생겼으며 이후로는 대학원 외에도 전문대와 사이버대학교, 대학교 학부 과정에 미술치료학과와 전공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생겨났다.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13년 12월 현재 미술치료 전공이 있는 석사과정은 25개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일반대학원에 있는 석사과정은 두 곳뿐이다. 다른 과정들은 전문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혹은 특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다. 일반대학원이 아닌 경우 학과 개설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술치료 학위과정이 짧은 기간 급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예술치유 관련 교과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학위과정 외에도 학회 및 협회의 사설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연구소, 상담소, 센터, 학원 등에서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미술치료 교육을 하고 있는 학회와 협회는 현재 22개가 넘는다. 이중 사단법인은 2008년 이후 등기가 된 기관이 5곳이고 나머지는 법인설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연혁 소개도 없이 사이트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다. 그 중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등을 이용하여 교육 신청을 받는 곳들도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올라 있는 미술치료 관련 자격증만 해도 현재 72개에 달하며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들은 각종 교육기관이다. 미술치료 교육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기까지의 기간, 졸업이나 수료 조건, 교과 편성, 교육 시수 등이 제각각 다른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미술치료 분야에서도 교육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1992년에 만들어져 2008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미술치료학회(KATA)를 기준으로 국내 6개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논문을 보면, 학교마다 커리큘럼에 차이가 크다. 미술치료 개론과 이론에 관련된 교과목이 많이 다르고, 개인미술치료와 집단미술치료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심리치료나 심리학에 치중된 편성이 있는가 하면, 미술 스튜디오 수업이 강화되거나, 미술 일반의 이론수업에 많은 시수를 배정한 학교들도 있다. 연령별, 대상별 미술치료 수업도 아동의 경우는 공통되지만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부부, 정신장애 등 다루는 대상에 있어서는 교육과정마다 차이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예술치유 관련 교과과정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패턴이다.

해당 과목에 대한 국내 참고도서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교과목명이 유사하다 해도 위의 강좌들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치료 이론이나 특론, 세미나 혹은 미술치료 연구로 과목명이 정해진 것들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과목 특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대학원 입학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신청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주요 6개 대학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동일계 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나 예정자 혹은 동일 자격자가 사전 관련분야 학점 이수 조항 없이 지원 가능하다. 미술, 심리학, 사회복지, 유아교육, 특수아동교육 등 관련학과 출신자는 서류전형 시 우대하겠다는 조항을 걸고 있는 학교가 있고, 면접 시 자신의 미술실기 작업 내용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도 된다는 선택권을 주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입학을 결정하고 있다.

예술 치료 및 치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실습 및 임상감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미술 치료의 경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구대와 원광대, 영남대는 500시간의 실습시간을 정해놓고 있고, 서울여대는 600시간, 명지대는 720시간, 동국대는 300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위의 학교들도 실습 시 누구에게 몇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받을 것인지를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학교 내에 관련 분야의 교수는 있지만 임상감독을 전문적으로 해줄 미술치료 전문가가 부족하고, 실습을 해야 하는 학생 수에 비례하게 강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1:1 혹은 적정인원의 집단별 감독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학교는 실습감독 수업이 교과목에 없는 학교도 있고, 학위논문을 쓰지 않아도 대체 학점을 더 따면 졸업이 가능하게 학제를 풀어준 학교도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미국미술치료협회(AATA) 내부의 교육프로그램승인위원회 기준(EPABS)에 따라 미술치료 학위과정을 승인해주고 있다. AATA의 기준을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석사과정 입학 신청자들에게 학부졸업 성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각 학교마다 입학 가

능 평균학점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있다. 입학 신청자는 최소 18학점 이상의 미술 스튜디오 과목들과 12학점 이상의 심리학 과목들을 듣고 학점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심리학 과목 중 필수 과목은 발달심리학과 이상심리학이다. 미술치료사에게 중요한 자질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미술작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학교들은 입학 신청자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 및 이력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다. 어떤 학교는 입학 신청자의 학업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대학원입학능력시험(GRE) 성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미국 학교들도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 전형 후 면접을 거쳐 입학생을 선별한다.

AATA에서 인가를 내준 대학원이라도 7년마다 재검증을 통해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교육과정들은 입학기준과 교육과정 및 졸업기준이 동일하다. 하물며 담당 교수들의 조건도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 AATA 기준에 따르면 미술치료 석사과정의 학과장은 ‘미술치료, 상담, 사회복지, 심리학 등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면허증이 있는 ATR-BC 혹은 ATR 자격이 있는 교수’이거나 ‘미술치료나 상담, 사회복지, 심리학에 박사학위가 있는 ATR 자격이 있는 교수’로서 정교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술치료 내용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모두 ATR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교수진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최근 5년 이상 미술치료사로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커리큘럼은 최소 48학점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 24학점은 ATR 자격을 갖춘 교수가 다음과 같은 미술치료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역시 미술치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정리해 두자면 다음과 같다.

- 미술치료 역사와 이론 – 타 분야와 치료적으로 구분되는 임상 실천의 하나로서 미술치료가 발전해온 역사를 배운다. 그에 공헌한 미술치료사들, 사건들, 역사와 이론이 포함된다. 또한 미술치료와 관련된 심리치료 이론도 개관한다.
- 미술치료 기법 – 미술창작 과정과 매체의 치료적 활용성 및 그것의 심리적 영향력을 직접 경험해본다. 치료 목표를 설정한 뒤 개입 전략으로 이끄는 미술창작의 치료적 효과를 규명해본다.
- 다양한 치료 세팅에서의 미술치료 적용 – 정신병원의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 및 낮병동 등과 같은 부분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을 위한 임상적 개입에 대해 연구한다. 그들과 치료적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상담 기술 및 인터뷰

기술, 언어적·행동적·미술 시각적 소통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진단 및 치료 계획, 치료적 접근법, 관계 역동 등을 연구하고, 현장의 치료팀 내에서의 미술치료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운다.

- 집단 –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한다. 집단 상담 방법론과 기술을 익히고, 집단의 구성 기준, 단기 및 장기 집단 과정, 집단 역동의 원리들, 집단원들의 역할과 행동, 리더십의 스타일들에 대해 연구한다. 다양한 접근법들과 함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 미술치료 진단 – 미술치료 진단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들을 배운다. 타당성 및 신뢰성과 같은 통계학적 개념들, 진단 도구 선택법, 검사와 평가에 사용되는 특정한 미술치료 도구 및 절차들에 익숙해진다. 진단 대상의 발달수준, 문화적 요인들, 병리학적인 특성들을 이해하고, 미술 작업과 작품에 드러나는 대상의 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미술치료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 치료 목표를 형식화하는 법, 진단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배운다.
- 윤리적·법적 이슈들 –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윤리에 대해 배우며, 미술치료 현장에서 요구 받을 수 있는 윤리적 판단들에 대해 이해한다. AATA와 ATCB의 윤리 기준들에 대해 배우고, ACA와 다른 분야의 윤리 기준들에 대해서도 익힌다. 미술치료 현장에서 윤리적·법적 원리들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법도 연구한다.
- 미술치료의 실제 (기본) – 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동료 관계를 맺고 미술치료사로서 기능할 때 자신의 전문적인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해한다. 직업적인 전문가 조직들에 대해 배우고, 자격요건 및 기준에 맞춰 면허를 따는 노력을 하며, 공공 법규를 지키고 고객을 보호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 주장하는 법에 대해서도 익힌다. 노동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력서를 쓰는 법을 연습하고 전문적인 인터뷰 기술 등을 익힌다.
- 문화적·사회적 다양성 – 문화적 다양성 이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다. 미술이라는 시각언어 및 상징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미술 과정과 작품이 문화와 사회마다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 사회정의론을 주창하고 옹호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미술치료사의 역할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미국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면 최소 2학기 이상, 600시간 이상을 감독 받으면서 미술

치료사로서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그 중 300시간은 개인, 집단, 가족 치료 내에서 내담자와 직접 접촉한 시간이어야 하고 그 외는 행정적 업무나 기록 및 정리 등 사무적 시간을 포함해도 된다. 감독시간에 감독자는 실습생의 작업을 논의하고 사례 검토를 하며, 그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 즉 ‘보고서 쓰기, 회기 준비하기, 치료팀과의 미팅, 재직자들 회의, 기타 관련 활동, 결과 평가, 성공적인 치료 종결’ 등에 대해 가르친다. 실습생은 그 수업에서 임상 자료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케이스 발표를 통해 이론과 실재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감독은 개인 감독과 집단 감독이 있는데, 개인 감독의 경우 내담자와 10시간 작업할 때마다 1시간씩 ATR 자격이 있는 교수나 관련 분야(창의적 예술치료사, 사회복지, 심리학, 부부와 가족치료, 정신의학, 상담) 전문가에게 교내에서 임상감독을 받아야 한다. 집단 감독은 실습 10시간마다 1.5시간동안 교육 과정 내 ATR 자격이 있는 교수에게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때 집단크기는 정원 8명을 넘으면 안 된다. 감독자의 임무는 내담자의 연령, 현장 세팅, 개입 종류(개인, 집단, 가족)의 다양성에 맞춰 미술치료를 특수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실습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현장 기관 내에도 감독자가 있어 일대일이나 세 명이 같이 감독을 받게 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에 교수진은 매학기 정기적으로 이론 및 실습에서 보이는 학생의 학업 성과 및 과정을 평가하고 그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감독의 경우 감독자는 실습생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또한 그에 대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실습생은 그 사항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평가도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과 졸업생들은 강좌, 실습, 강의, 감독, 행정처리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절차를 밟아 평가를 하고,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술치료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은 위에서처럼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적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미술치료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치료 분야에 있어서 전반의 기준과 체계가 없다. 미국 대학원의 입학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치료 지원자는 심리학적 기반과 미술 경험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사과정에서 미술이나 다른 학문을 전공한 이들이 대학원에 들어와 심리학 과목들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술학사 취득자의 미술치료 석사과정 경험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보면, 미술학사 과정에서 세부전공으로 디자인, 회화, 공예, 조소를 전공한 이후 미술치료 석사학위를 받은 조사 대상자들은 ‘이론 중심의 학과목 습득에 따른 버거움’, ‘논리적 언어 능력에 대한 부족감’, ‘학문 습득에 대한 지속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 같다. 인터뷰 대상이 된 미술치료 학도들은 언어보다 미술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 익숙했던 미술학도들이었던 만큼 자기

생각을 말 언어로써 정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논리적인 표현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또한 인문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소한 교과목 학습이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었고, 방대한 학습량이 버거워 힘들었으며, 실기 중심에서 이론학습 중심으로 수업환경이 변화된 것에도 적응이 안되었다고 한다. 심리학적 기반이 없어 대학원 과정에서 더 많은 이론을 배우길 희망했지만 그나마 배운 이론들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과정 내내 답답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졸업 후 현장에 나온 미술치료사들은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된다. 예술치료사의 재교육 현황 및 욕구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미술치료사들은 ‘전문성 고취, 개인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새로운 지식 및 기법 습득, 윤리성 확립’ 등을 위해 재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재교육의 형태로는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가장 선호했고, 사례연구나 강의 및 강연, 소규모 그룹학습 등의 순서로 바랐다. 재교육에 적절한 강사로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예술치료 관련분야 교수가 아니라 예술치료 실무 종사자였다. 근무하는 기관에서 기관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강의나 외부강사 초빙 강의, 사례연구나 역할 학습 등이 실시되는 경우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기관 내 재교육 기회가 없다는 대답이 응답자 중 68%나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업무가 과중해서 시간도 잘 안 나는 데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까지 부족해서 대부분의 미술치료사들이 재교육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내 예술치료 관련 분야 중 상대적으로 오래된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10여년에 불과한 국내 치료 교육 체계를 50여년의 역사와 안정된 체계를 갖춘 미국의 경우에 대응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국내 미술치료 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고민한 타국의 사례들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2) 예술치유 관련 교과과정 현황

분야별	학교	학과/전공	소재지	학위			
				전문 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예술치유 일반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예술치료전공	대구 달서구			○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예술치료학과	광주 광산구			○	
	대구예술대학교	예술치료학과	경북 칠곡군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서울 중구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서울 서대문구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표현예술치료학과	서울 노원구			○	○
	열린사이버대학교	예술상담학과	서울 종로구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예술치료전공	전북 익산시			○	○
	전주대학교	예술치료학과	전북 전주시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예술교육치료전공	서울 성동구			○	
문학치유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치료학과	대구 북구			○	○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문학치료전공	전북 익산시			○	
미술치유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특수치료학과 미술치료학전공	경기 성남시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치료전공	서울 광진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대구 달서구			○	○
	광주여자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광주 광산구		○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경북 경산시		○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	경북 경산시			○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미술치료학과	경북 경산시		○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대전 서구			○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보육가정상담학과 미술치료전공	부산 부산진구				
	세경대학교	미술치료과	강원 영월군	○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충남 아산시			○	
	안동과학대학교	미술심리재활과	경북 안동시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경북 경산시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대구 남구			○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전북 완주군			○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전북 익산시			○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경기 평택시			○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서울 성동구		○		
	한일장신대학교	상담심리학부 미술치료학전공	전북 완주군		○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전공	전북 완주군			○	
음악치유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특수치료학과 음악치료학전공	경기 성남시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대구 달서구			○	○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대전 서구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서울 성북구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전공	서울 용산구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치유음악목회전공	서울 용산구			○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충남 아산시			○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전북 임실군			○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전북 익산시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서울 서대문구			○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 음악치료전공	경기 군포시			○	○
	한세대학교 치료상담대학원	음악치료전공	경기 군포시			○	
무용/동 작치유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특수치료학과 움직임치료학전공	경기 성남시			○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특구치료학과 무용치료학전공	경기 성남시			○	
	경희대학교	무용-한의학 트랙	서울 동대문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동작치료전공	대구 달서구			○	○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무용치료전공	대전 서구			○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무용치료전공	충남 아산시			○	
기타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무용연극치료전공	전북 익산시			○	

## IV. 예술치유 분야 전문가 조사

예술 치유·치료 영역은 확대 중이다. 힐링의 열기와 맞물려 기존의 의학적인 접근을 보완하거나 협력하는 차원에서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술치료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예술치료에서 예술치료 전문가는 예술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참여자와 함께 교류하는 특별한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치료관계와 더불어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과 자기발견을 형성해 가는 독창적인 결합과정을 공유한다.

조사 내용은 예술치료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 예술치료의 이론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치료사들의 조사반응은 예술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필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선 미술치료사 집단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과 향후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알아 보았다.

### 1.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집단의 인터뷰는 현장에서 오래 동안 예술치료를 하고 있는 예술치료 전문가의 예술치료와 관련된 의견을 담고 있다.

#### ① 미술치료전문가, 경력 15년, 병원 미술치료실 근무

##### - 예술치료에 대한 의견

-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내담자를 먼저 이해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내담자와의 활동을 통해 알아나간다.
- 치료적 목적은 내담자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 진단에 의해 나타난 자료를 보고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가 주호소인지, 소근육 기능적 문제가 주호소인지에 따라 치료적 접근으로 활동을 해 나간다.
- 특히 영 유아인 경우 미술치료 접근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매체접근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

#### ② 음악치료 전문가, 경력 11년, 음악치료센터 근무

##### - 예술치료에 대한 의견

- 내담자(아동)을 가능한 한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주 호소 문제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내담자와 상호작용 및 내면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 내담자의 적극적(능동적)인 표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담자와의 신뢰와 안정적인 공감의 이루어 질 때 가능하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미술치료전문가, 경력 9년, 미술치유연구소 근무

#### – 예술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미술치료사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으로 건강하고 자기치유적 노력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내담자 입장에서 미술매체를 활용하고 치료과정에 무의식 의식 이상적 욕구를 구별해야 한다.
- 치료가 아닌 치유와 완화의 개념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
- 미술치료는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 필요하므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상징적인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한다.

### ④ 음악치료사, 경력 5년, 예술치료 센터 근무

#### – 예술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치료사는 내담자(아동)를 사랑으로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담자의 아픔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내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온전히 내담자를 이해하고 집중하고 경청해 주어야 하며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려면 먼저 치료사가 자신의 문제를 모두 털어내고 넓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전문가 설문조사

관련 분야의 치료사 자격증을 갖춘 뒤 경력 2년 이상의 예술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차적 예비조사는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스노우볼링(snowballing)해 치료센터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음악, 미술치료사 10명에게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해 추가해야 할 항목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제안 받아 조사표를 수정했다. 초기 조사표는 관련 전문가 인터뷰와 선행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해 개발했다.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이루어졌다. 유선상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총 80명의 설문지를 회수했다.

조사내용은 예술치료의 접근 및 방법, 평가, 예술치료사 및 예술치료 전문가의 역할, 향후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구성했다. 설문조사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경력을 비롯해, 예술치료 전문가들의 치료접근 및 진행, 치료사들의 치료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미술치료의 역할 및 정책적 수요 등을 알아보았다. 예술치료 자격취득 후의 경력이 중요하므로 구분을 하기위해 경력 2년 이상에서 경력 5년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누었다. 조사 내용의 구분은 예술치료 ‘접근 및 진행’ 7문항, ‘평가’ 5문항, ‘치료사의 역할’ 5문항으로 하였다. 설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라’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술치료사의 의견이 동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했다.

<표> 예술치료 전문가의 경력

구분	빈도	비율(%)
2년차	6	7.0
3년차	20	25.6
4년차	9	11.6
5년차	45	55.8
계	80	100
평균	4.16(년)	

위 표에서 처럼 경력 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화를 이용해서 독촉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전화번호가 많이 노출된 센터나 연구소에서 많이 설문지를 보내왔다. 때문에 경력 5년 이상이 55.8%이다. 매우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류가 다수이다. 이는 내용면에서 보다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경력의 차이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에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경력 5년 이상의 예술치료사들이 과반수 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예술치료의 내용으로 예술치료의 접근 및 진행에 관한 설문조사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예술치료에서의 접근과 프로세스의 중요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	4.98	.15
임상적인 치료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93	.26
면담 과정의 기록이 중요하다	4.77	.43
사전 검사를 근거로 한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	4.40	.70
주 호소문제를 중심으로 치료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4.44	.55

위 표는 예술치료사들의 치료방법 중 접근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대부분의 접근방법 및 진행과정은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표준편차 값도 모두 낮게 나온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슷하게 평가했다. 이는 예술치료사들이 모두 공감하는 치료방법에서 접근 및 과정이다. 다양한 지식이 연합하여 참여자를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과 함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임상적인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는 심리치료적인 기법에서 단순히 심리적인 접근과 치료기법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심리학 및 임상과 관련된 지식을 어떻게 고려되는 지에 대해서 예술치료 전문가의 의견은 모두 필요한 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예술치료를 있어서 평가에 대한 의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예술치료는 세심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4.88	.32
예술치료는 사후검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도구로 검사를 하는 일반적인 임상적 접근보다 진행 과정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26	.90
예술치료를 대해서 일반화된 도구로 사후 검사하는 것은 순수한 예술치료의 효과를 알기위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	2.62	1.15
예술치료 전반에 대한 평가기록으로 충분히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3.93	.89

위 결과는 예술치료 전문가들이 치유 및 치료에서 평가에 대한 4가지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예술치료사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M=4.88, SD=.32), “예술치료는 사후검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도구로 검사를 하는 것보다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M=4.26, SD=.90)의 문항은 일반적인 평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예술치료사의 경력에 따른 차이가 다소 나타나며, 전문가별로 의견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는 문항이기도 하다.

또한 “예술치료전반의 평가기록으로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M=3.93, SD=.89) 문항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평가 문항으로 나타났다. 예술치료사의 개인 역량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예술치료를 대해서 일반화된 도구로 사후 검사하는 것은 순수한 예술치료의 효과에 관한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M=2.62, SD=.1.15) 문항은 약간 낮은 수

준의 응답결과를 보였다. 표준편차의 수치를 보면 전문가들 의견이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술치료에 있어서 일반화된 도구로 사후 검사하는 것 또한 예술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예술치료 전문가의 역할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정확한 진단 능력이 중요하다	4.72	.59
상담 및 교육 능력이 중요하다	4.84	.43
자신의 관리 및 지속적인 연구, 재교육이 중요하다	4.93	.26
세심한 배려와 인성과 같은 인성이 중요하다	4.86	.35

예술치료사들의 역할에 대한 네 가지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모든 문항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슷한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예술 치료 전문가는 가능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과 교육이 가능해야 하며, 자신의 관리 및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는 재교육과 치료사 자신의 인성과 관련되어 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표> 경력에 따른 예술치료에 대한 접근에 대한 의견 차이

구분	2~4년차	5년차 이상	t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	4.95	5	-1.00
임상적인 치료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95	4.92	.38
면담 과정의 기록이 중요하다	4.74	4.79	-.41
사전 검사를 근거로 한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	4.21	4.54	-1.58
주 호소문제를 중심으로 치료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4.47	4.42	.34

위 결과는 예술치료 전문가의 경력을 ‘2-4년’/‘5년 이상’으로 나뉘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력을 구분하였다. 경력이 5년 이상이 과반을 차지한 탓에 경력이 더 많은 집단의 의견 특성을 알아보려고 평가점수간의 t-test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예술치료사 경력에 따른 예술치료의 “접근 및 진행”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된 경력에 상관없이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들을 알 수 있다.

예술치료사 경력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예술치료의 “평가”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술치료사 경력에 따른 예술치료의 “평가”는 “일반화된 도구의 사후검사는 순수히 예술치료 효과에 관한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t=2.35, p<.05)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력 2-4년의 예술치료사들이 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경력 2-4년의 예술치료사들은 일반화된 도구의 사후검사도 순수 예술치료의 효과에 관한 조사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으나, 경력 5년 이상의 예술치료사들은 일반화된 도구의 사후검사는 순수한 예술치료효과가 아니라는 것에 더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도구로 검사를 하는 것보다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부분은 예술치료사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경력이 따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술치료는 예술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이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예술치료사 경력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예술치료사의 “역할”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술치료사 경력에 따른 예술치료사의 “역할” 중 “예술치료사의 자기관리 및 지속적 연구”(t=-2.07, p<.05), “예술치료사의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t=-2.14, p<.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4년차의 경력자보다 5년차 이상의 경력자가 전문가 자신의 내적인 관리와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2-4년차 경력자보다 5년차 이상의 경력자들은 예술치료사의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에 대한 중요성이 예술치료사의 역할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알 수 있다.

## V. 종합 및 정책적 제언

### 1. 정책적 방향 제안 배경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정신적 건강이 점차 삶의 질 향상에 주요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예술치유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예술치료계·문화예술계·예술교육계 등 분야에서 예술치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예술치유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입주 작가 및 참여자 또한 개념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예술치료(art therapy)의 접근과 달리 예술 자체의 활동을 통한 치유적 효과로 집중되는 예술창작(non-therapy art)활동을 전제로 하는 개념 정립과 활동에 대한 규정이 요구된다.

### 2. 예술치유 관련 해외 연구 및 정책 흐름

#### (1) ‘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of the arts) 연구

‘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of the arts)연구는 1993년 영국의 코미디아(Comedia)<sup>1)</sup>를 시작으로 1994년 호주에서 진행된 데이드레 윌리엄스(Deidre Williams)의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 측정연구, 199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예술의 사회적 영향 프로젝트(SIAP,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Project)를 기반으로 한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90년대 영국이 도시 재생에 따른 변화를 주도함에 있어 예술의 역할을 경제적·사회적 효과 속에서 바로보기 시작한 것과 맞물리며,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의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론과 관련하여 사회적 신뢰 회복에 대한 절실함이 부각되던 상황도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과 경제주의적 시각이나 신념을 대체할 사회적 가치가 대두되던 당시 분위기도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와 평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영향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sup>2)</sup>이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검증하고 예술을 정당화할 질적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예

1) 창조도시 이론가인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가 운영하는 연구 및 기획단체로서 국제적으로 창조도시 프로젝트 및 다양한 연구·기획사업을 실행함

2) 많은 연구자는 영국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부각하는 데 대해 실제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술로 인한 대중의 건강과 교육적 효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등한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히려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 효과에 의해 파생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술체험에 따른 개인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촉매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객관적 사실이나 지표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영향의 단계를 복합적 측면에서 다룬 최초의 연구 「효용인가 장식인가?: 예술 참여의 사회적 효과(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Matarasso, 1997)」<sup>3)</sup>에서는 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다음의 6개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Matarasso, 1997)

<표> 예술 활동 참여의 사회적 영향 분류(Matarasso, 1997)

<b>개인적 발전</b> (personal development)	개인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변화를 다룬 것으로 자기확신, 교육,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함
<b>사회적 결속력</b> (social cohesion)	사람과 그룹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한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거부 의식과 상호 문화적이고 세대 간 이해를 통한 공감대 및 연대의식을 의미함
<b>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자기결정력</b> (community 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조직화에 대한 역량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갈 동기 유발을 지지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의미함
<b>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b> (local image and identity)	장소성에 대한 의식과 지역 소속감, 그리고 지역적 차이와 그룹 또는 공공기관의 이미지에 관한 것을 의미함
<b>상상력과 비전</b> (imagination and vision)	창의성과 전문적 실천력, 긍정적 도전 정신, 그리고 기대감과 상징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말함
<b>건강과 웰빙</b> (health and well-being)	예술을 통한 건강 회복과 교육적 효과,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을 의미함

이 보고서의 제목 ‘효용인가 장식인가’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결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며, 실제로 예술과 형식의 문제로서 가장 유용한 것이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

3) 코미디아(Comedia) 소속의 프랑수아 마타라소(François Matarasso)가 개인과 그룹,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총 60개 프로젝트를 18개월 동안 설문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연구함

다운 것이 유용한 것이라는 논리로 풀이된다(Matarasso, 1997).

코미디아의 연구가 개념적 작업에 기초를 닦았다면, 1995년 데이드레 윌리엄스(Deidre Williams)는 경험적 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예술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했다.

데이드레 윌리엄스는 1996년 「사회 자본의 창조」(Creating Social Capital)<sup>4)</sup>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미디아와 함께 커뮤니티의 문화발전을 위한 예술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표> 커뮤니티의 문화발전을 위한 예술의 주요 성과(Williams, 1997)

성과영역	지표
사회 자본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내 소통 능력이 개선된 수준</li> <li>· 커뮤니티 계획과 조직의 개선된 수준</li> <li>· 다양한 문화 혹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용의 증대</li> <li>· 정부와 커뮤니티 사이의 협의 방식 개선</li> <li>·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이해력의 증대</li> </ul>
커뮤니티의 재건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식</li> <li>·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사람의 감소</li> <li>· 커뮤니티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의 개선</li> <li>·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 기업의 발전</li> <li>· 공공시설의 증대 혹은 개선</li> </ul>
사회변화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의 이슈에 대한 인식의 증대</li> <li>·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커뮤니티의 행동</li> <li>· 다양한 문화 혹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용의 증대</li> <li>·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의 고용기회의 증대</li> <li>· 공공 안전의 수준 향상</li> </ul>
인적 자본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기술의 향상</li> <li>· 계획과 조직 역량의 향상</li> <li>·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li> <li>· 정보 해석능력</li> <li>· 창의력의 향상</li> </ul>

4) 데이드레 윌리엄스(Deidre Williams)가 호주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공적 기금으로 진행된 호주의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에 사회적·교육적·예술적 효과에 대해 조사 연구함. 그러나 당시 호주 사회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이라 그다지 주목받지 못함

경제적 성과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안에서의 비용 절감</li> <li>· 지역사회 고용 선택권의 증대</li> <li>· 정부와 커뮤니티 사이의 협의방식 개선</li> <li>·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 기업의 발전</li> <li>·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기업 투자</li> <li>· 커뮤니티 내로 유입되는 자원 및 지역 소비의 증대</li> </ul>
------------	--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는 보다 발전된 이론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전개되지만 정의가 갖는 경계의 모호함과 더불어 실제 사회적 영향 측정의 어려움은 논란거리가 되었다.<sup>5)</sup>

공적 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 분야는 프로젝트의 가치와 영향력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정책적 요구사항이지만, 산출(output)보다는 성과(outcome)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노력은 쉽게 설득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영향관계를 규명할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의 어려움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sup>6)</sup>과 달리 윌리엄스는 커뮤니티 아트를 평가하기 위한 기존 프레임워크가 문화민주주의의 개념과 사회 자본 혹은 인간 발달을 위한 학습 등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랭커스터 대학 존 러스킨 연구소의 로버트 헤위슨(Robert Hewison) 교수를 포함한 몇몇 학자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이 (정책적으로) ‘의도된’ 사회적 효과와 달리 예술 자체의 본질 성격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일 뿐이다. 그의 음악으로 그가 있는 것이지, 그로 인해 잘츠부르크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카소가 중요한 것은 그가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이지 그의 작품이 빌바오 구겐하임에 소장되어 퇴락한 스페인 항구도시를 재생시켜서가 아니다(Tusa, J in Reeves).

5) 많은 연구가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혹은 커뮤니티 문화 발달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비롯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전히 ‘영향’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와 그것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란은 곧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의를 둘러싼 명쾌함의 부족에 따른 결과다(Guetzkow 2002; Reeves 2002).

6) 방법론적 문제를 강조하는 경우는 파올라 멀리(Paola Merli)의 입장인데, 그녀는 마타라스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조사를 위한 설계디자인이 모호하고 방법론이 엄격하지 못한 지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이나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제안하기도 했다(Merli, 2002).

-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라 했을 때 교황이 관광객에게 벽화를 보도록 접근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사업적 계획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건강과 범죄, 교육과 고용을 위한 교황청의 사회 배제 프로젝트와의 연결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Hewison, 2003).

또한 파올라 멀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래의 커뮤니티 아트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 논의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통제를 복원하는 것이라 말함(Merli, 2002). 다시 말해 축제의 어려움과 방법론의 문제 이상으로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가 정책적 요구에 준하여 진행되면서 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술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산출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정 지원의 당위성을 얻기 위한 도구적 차원으로 활용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마타 라소가 주장한 것처럼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다 해서 그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술의 도구적 혜택과 본질적 혜택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2) 예술과 건강(Arts & Health) 관련 연구의 흐름과 쟁점

의학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협의적 차원에서 건강은 일정한 형태와 구조를 갖춘 몸이 그 구조에 합당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광의적 차원에서 건강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

윈저(Windsor, 2005)는 기존의 현대 의학이 사람과 병의 일부분만 볼뿐 인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병원과 의원 등 환자의 일상생활(가족, 친구, 지역, 사회)과 분리된 장소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와 소원한 관계이며 치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식이 점차 확장되고, 환경, 경제, 사회, 정서적 요소 등이 건강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활발히 발표되면서 건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접근에서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 소통, 자율성, 책임성, 자기 통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 문화 등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에 이른다.<sup>7)</sup>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일찍이 예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와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p153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을 설립했다. 1965년 NEA는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후 1969년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예술치료협회), ‘Hospital Audiences New York’<sup>8)</sup>이 설립되면서 예술과 건강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건강에 대한 예술적 접근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되었으며, 대학과 병원에서는 건강과 예술 관련 부설기관이 설립되고, 이 밖에도 다양한 독립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술치료협회에 따르면 “예술치료는 예술 제작의 창조적 과정이 치유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념에 기초하며, 사유와 감정에 의한 비언어적 소통의 형태라 할 수 있다”로 정의된다.

이후 예술치료는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청소년과 어린이, 성인과 그룹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1990년대 말부터 에이즈와 천식, 화상, 암, 약물 의존, 트라우마, 폐결핵, 그리고 여러 다른 질병과 회복을 위한 요구에 대응하게 된다(Malchiodi 1999). 따라서 예술치료적 관점은 환자를 위한 치료법이 내재되어 있는 형태로서의 예술을 바라보고 실행하는 것이라 규정한다(Mills & Goodwin, 1991).

국내의 경우에도 예술치료 효과성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치료협회, 사설기관, 대학 및 병원의 부설연구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예술프로그램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예술을 통한 광의적 차원의 건강증진 보다는 일부 질병치료를 위한 부수적 수단이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예술치료 논의에서 건강에 대한 광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연구 및 담론 형성이 요구된다. 개인의 건강한 삶은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 주변 환경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전제 속에서 예술의 역할을 모색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8) 1969년 Michael Jon Spencer가 뉴욕지역의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기관임. 이들은 육체적·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에이즈환자,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방 및 지방정부, 재단, 기업, 개인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3) 예술 치료의 복합학문적 성격

예술치료는 예술 활동을 매개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인격을 인지하고 극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료 방법이다. 이는 예술, 심리학, 정신의학, 인간학, 사회학 등의 여러 학문이 상호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이론적 관점과 방법이 학자마다 다르게 연구되고 있음. 예술치료는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예술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예술치료는 영국 미술가 앤드리언 힐(Andrian Hill)이 1942년 결핵요양소에서 동료 환자와 함께 치료 작업을 시작하면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마가렛 나움버그(Magaret Naumburg, 1890-1983) 역시 진단과 치료라는 행위 속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입각한 미술표현을 도입함으로써 정신치료요법(psychotherapy)으로서의 미술치료 영역을 개척함. 1950년대 환우의 자아방어기제를 제거하지 않고 무의식 세계를 방출시키는 표현을 도와줌으로써 심리치료를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징적 경험을 통해 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치료환경에서 벗어나 비교적 보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진단, 개입, 완치 등의 의학적 접근과 연계하여 정신과 병동을 비롯한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심리적 질병 위주의 병원에서의 활동이 확대되어 교정시설, 장애시설, 노인시설 등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예술 활동과 작품이 전체적인 치료 환경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를 통해 집단 치료의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었으며, 집단치료에서 치료사는 화가, 교사, 치료사의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70년대 집단 치료원리를 확장하여 미술치료를 가족 간의 역동적 심리 관계가 일차적으로 강조되는 가족 집단치료까지 응용하게 되었고 예술을 정상적인 집단에 적용시켜 삶을 풍부하고 폭넓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상자, 과정과 방법, 기대 효과가 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언어적인 소통 매체인 예술 활동을 통해 상실·왜곡·억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상,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실현을 기대하게 된다.



#### (4) ‘예술 치료’와의 관계

예술 치료가 발전하면서 질병, 장애 등의 외상과 심리적 재활에 발현된 임상적 효과에서 예술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이 다면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명상, 자기 성찰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종교적 행위와 결합하여 전인적 성장과 건강에 대해, 치료가 아닌 건강(health)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치유(heal)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약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질병을 낮게 하는 것이 치료라면, 질병에 대하여 몸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몸 내부의 능력으로 병을 다스려 나아지고 편안한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하는 것이 치유라 할 수 있다. 물론 치료 자체가 치유적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명확한 구분이 어렵지만 외부 개입이 우선되는 경우와 내적 강화가 우선되는 경우로 방법론적인 구분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치유는 삶(일상)의 역량과 기술을 가르치며, 이들은 명상, 숨쉬기, 요가 등의 대체 수행 방법을 활용하며, 역증요법의 약품, 약물을 최소 사용하여 치료하는 동증요법, 척추지압, 심리치료, 마사지, 영양식 등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평화, 사회 평화, 동등권, 동물 보호 등에 관심과 이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식 개선을 지향한다. 의식의 정신적, 감성적 상태 파악의 핵심적인 정보를 도출하여 이를 치료로 연계하는 의료적인 활동은 아니나 심각한 정신적 질환과 증상 발현을 방지하거나 발병 치료 후 재발을 방지 하도록 하며, 스트레스 관리, 몸과 마음의 안정, 신체적 활력, 소통의 기술 습득, 영성적 자각 등을 통해 신체적 고통과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유의 과정은 다양하게 구성되나 리더십 역량개발, 충돌의 해결, 문제 해결, 가족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효과적 소통, 화와 스트레스 관리, 관계 개선을 위한 나의 인식, 위기 대응 등의 자기 계발의 접근을 포함하며, 개인적 경험과 예술의 접목을 통해 창의적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감성적 혹은 영성적으로 질병이나 상황과 대응하는 매체와 방법으로 예술을 활용하고 놀라울 만큼의 변화와 효과의 기록이 연구되고 있다.

## (5) 비치료 예술(Non-therapy art)의 성격과 정의

예술치료가 치유와 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고, 또 예술치료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의료적 개념이 성격 규정으로 강화됨에 따라 또다시 예술 자체에 대한 논의가 주어지면서 일정한 분리를 통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예술가이자 작가, 연구자로서 1978년부터 ‘예술과 건강’ 분야에서 작업을 해 왔으며 실제 맨체스터 세인트 메리 병원<sup>9)</sup>에서 병원 예술 팀을 구성하여 활동해 온 맨체스터 대학의 랭그리 브라운(Langley Brown)은 2006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sup>9)</sup>에서 치료나 진단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치료와 달리 창의적 예술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non-therapy art’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상적 치료(clinical) 경력을 가진 치료사가 치료에 예술을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의 창의적 활동 참여로 몸과 마음이 자생적이고 자발적 회복과 안정을 되찾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자기표현, 자아실현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며, 치료를 위한 진단 및 상담과 같은 치료의 개입이 아닌 예술 참여에서 발현되는 효과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예술창작 활동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은 감성, 태도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예술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장르간의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방의 효과와 감성적 웰빙(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술의 발견, 탐색, 공유 등의 요소는 치유의 과정과 접목되어 창의적 글쓰기, 몸짓(무용), 시각예술 등 사람들의 관점, 무드 등 전반적인 건강에 변화를 주기도 하는 것으로 증명 되고 있다.

실제로 브라운은 병원에서 개최되는 인형극이 어떻게 환우들에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병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지의 지점을 중시하면서 건강의 회복과 극복의 의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커뮤니티 아트 등)을 모두 통칭하게 된다.

또한 전문 치료사가 아닌 공식적인 임상 활동의 경험이 없는 예술가가 특정 질병에 대한 치

---

9) Langley Brown(2006). Is Art Therapy? Art for mental health at the millennium. PhD thesis.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작 기법이 개발되는 가운데 치유적 효과가 훨씬 근원적으로 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 가운데 예술을 인간 행동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서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적 방법론<sup>10)</sup>을 통해 자기 성찰력을 증진함으로써 치유적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다.

### 3. 해외 우수 사례 분석

#### (1) 호주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이하 Vic Health)<sup>11)</sup>

##### ▶ 기관 개요

- 1987년 호주 빅토리아 주 담배규제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거두어진 세금을 기반으로 세계최초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관 Vic Health가 설립됨. 주요 활동으로는 운동, 예술, 대중문화를 통한 건강증진 또는 비전염성질환 예방장단기 프로그램을 실시함
- Vic Health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3년간 실시할 5가지 주요전략을 발표함. 건강한 식습관 촉진, 규칙적인 운동 장려, 흡연 및 음주의 위험성 경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향상을 계획함
- Vic Health는 정신건강(mental wellbeing)을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닌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인식했으며, 육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정신 질환은 호주 내에서 질병부담이 세 번째로 높은 질병이며, 2012년 빅토리아 주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Vic Health는 사회적 고립이 스트레스, 긴장, 우울증, 충격적 사건을 이겨낼 내면의 회복력 감퇴, 자살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에 가정, 사회, 일터 그리고 주변인을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10) 자서전적 문화기술지 방법은 연구자 개인의 경험이 연구대상 문화의 생활양식, 사건 및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 지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자서전이나 회고록과는 달리 자서전적 문화기술지는 타인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생기는 연구자의 행동, 사고 및 경험의 문화적 분석과 해석을 강조하게 됨

11) <http://www.vichealth.vic.gov.au/>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Vic Health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첫째는 정신건강과 개념 및 그 건강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연구 및 자료 수집이며, 둘째는 'Social connection, arts and new media'(예술과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형성)를 주제로 예술 활동 참여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
-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주요 기관의 정신건강관련 발간물부터 자체 기관 내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정신건강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볼 수 있음
- 'Motion: Arts, Physicality and Connection'(움직임)프로젝트는 신체 움직임을 활용하여 참여자가 활발한 자기신체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음. 2011년 프로젝트는 7개의 다른 장소에서 7가지의 다른 방식의 움직임 프로그램이 진행됨.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예술가들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거나 52주간 52개의 플래쉬몹(Flashmobs)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이 춤을 추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LEAP(Localities Enhancing Arts Participation)프로젝트는 3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3년간 조사 연구함
  - LEAP 프로젝트는 예술 활동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민의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의 예술 및 문화활동 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둠
  - 조사지역은 외진 교외지역 또는 성장하고 있는 중소도시(Casey, Ballarat/Central Highlands, Mildura) 3곳이 선정됨. 지역의 특징에 따라 프로젝트 운영 방법 및 연구 설계를 달리함
  - 뱅러랏(Ballarat; 빅토리아주 남부 도시)도시의 경우 Central Highland Arts Network(CHAN)를 설계하였는데 이는 현대적 기술을 활용한 지도 프로그램으로 창

작스튜디오를 지도화하여 주민들의 예술 활동 참여를 더 용이하게 함

## (2)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Arts for Health 연구소<sup>12)</sup>

### ▶ 기관 개요

- 1987년 설립되었으며 영국에서 가장 오랜 된 예술관련 연구기관임. 예술의 사회적 영향, 예술과 건강과의 관계와 같이 예술참여가 개인의 건강,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 대학 내 부설기관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해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유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Invest to Save: Arts in Health' 프로젝트는 영국 북서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로부터 3년간 예산지원을 받아 실시됨.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과 건강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문화예술과 같은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과 경제적 성과 증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고자 함
- 'Dementia and Imagination' 치매관련 프로젝트는 뱅거 대학(Bangor University)의 치매 서비스개발 센터에서 주도한 프로젝트로 3년간 120만 명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이 그들의 건강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연구·조사함. 연구를 주도한 클라이브 파킨슨(Cilive Parkinson) 소장은 시각예술, 문화정책학, 박물관학 연구자 뿐 아니라 치매와 노인, 심리,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예술과 관련된 연구에 새로운 방법을 이끌어냄
- 본 연구에서는 예술활동 참여가 어떻게 참여자를 변화시켰는지 특히, 예술의 무엇이 지역사회의 문화·신념·태도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치매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해 연구함
- 'I AM: art as an agent for change' 자화상 그리기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그레이트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영국 서부의 부), 머지사이드(Merseyside: 잉글랜드 북서부

12) <http://www.artsforhealth.org/>

의 주), 이탈리아, 터키 지역의 예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물이나 알콜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됨

- 참여 예술가 및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고 그리면서 자아와 편견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발견하게 됨. 즉 참여자들은 약물이나 알콜 중독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점차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리면서 변화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됨.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예술활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됨
- 또한 ‘건강을 위한 예술 아카이브’(Arts for Health Archive)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과 건강 관련 자료와 성과물, 사진 및 디지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이 아카이브는 ‘Non-therapy art’ 개념을 제안한 랭그리 브라운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3) 미국 American for the Arts의 예술 및 시민참여<sup>13)</sup>

#### ▶ 기관 개요

- 1960년 예술활동과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주도하에 비영리조직으로 설립됨. 이들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예술활동 참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음
- 이들은 예술을 인간의 삶과 본성의 기본요소로 인식하고 예술활동과 예술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씀
- 또한 예술의 날(Arts Advocacy Day), 예술관련 정책 세미나,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국 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해외 13개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Hip Hop Mental Health Project(이하 HHMHP)'프로젝트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수치심과 소외를 문화적으로 접근한 프로젝트임. HHMHP는 흑인 여성 예술가 Rha Goddess가 중심이 된 퍼포먼스 형태의 정신건강 프로젝트임.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는 Rha Goddess는 자신의 공연을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음

13) <http://animatingdemocracy.org/>

- HHMHP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대인에게 정신 질환의 징후, 증상 등을 교육하여 질병을 인식·발견하게 하고, 정신 질환의 요인이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흑인 여성 예술가 Rha Goddess의 예술형식은 일반적인 정신 질환 관련 교육방식과 차별화 되어 있어 그 효과가 높으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함

#### (4)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SIAP(예술의 사회적 영향 프로젝트)<sup>14)</sup>

##### ▶ 기관개요

- SIAP는 민간 및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사회의 웰빙(well-being: 복지, 행복, 안녕)을 위해 예술, 문화, 인문학을 개념화하고 이러한 분야들이 우리 일상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그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 이들은 예술과 문화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집단적 결속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예술의 활동을 통한 스펀오버 효과를 유도하여 공동체 정신, 사회지속력, 경제적 효과의 향상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음

#####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Natural Cultural Districts: A Three-City Study' 프로젝트는 뉴욕 지역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진행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임. 이 프로젝트는 볼티모어(Baltimore),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시애틀(Seattle)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지리학적, 문화생태학적 연구를 진행함
- 지역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자연 발생의(Natural) 문화적 특징과 변화상에 대해 논의하고 그 지역의 문화적 발전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봄.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예술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측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14) <http://www.sp2.upenn.edu/siap/index.html>

- 이 연구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관계를 제고하여 자연발생의 문화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생태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Arts-based Social Inclusion and Immigrant Communities' 연구는 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에 관한 것으로, 개념의 출발은 예술가와 문화예술 기관이 의도적으로 예술을 이민자들의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됨
- 이것은 현실적 전략의 필요성과 동시에 정책적 딜레마를 갖게 되는데, 그 핵심은 이민자들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영입시킬 것인가에 있음
- 'Age and Arts Participation: A Case against Demographic Destiny' 연령에 따른 예술참여 관련 연구는 미국 국립예술기금(NEA: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 2009년 Mart Stern에게 예술 참여시 연령과 집단에 관한 논문작성 의뢰에서 시작됨. 이 연구는 1980년대부터 예술활동 참여시 이러한 연관성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자료로 사용함. 연구결과 나이와 집단은 예술 참여에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5) Institute of Healing Art and Film<sup>15)</sup>

### ▶ 기관 개요

- 2011년 1월 제리 드베일(Jeri DeVale)박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임. 본 기관에서는 인간성의 완성과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예술활동(예술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사진, 비디오 등)을 활용한 개인 및 가족대상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은 마음-몸-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원함
- 또한 사회문제의 의식화, 세계 평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담론을 조성하고자 하며, 창의적 예술, 대체 의학, 가정의학 등을 다양한 치유적 활동으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은 개인 및 가족 상담, 세미나, 동영상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

15) <http://www.instituteofhealingartsandfilms.org/>



역주민을 위한 뉴스레터(소식지) 발간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6) Arts and Healing Network<sup>16)</sup>

### ▶ 기관 개요

- 2007년 예술과 치유를 위한 목소리, 예술가와 현장을 알리기 위해 브릿트 브라보(Britt Bravo)가 설립한 조직으로 예술을 매개로 개인, 지역사회, 지구의 치유와 재생을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임
- 예술가,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 공동체 내의 유기적 활동을 지향하고 있음

###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은 Art Corp: Art for Social Action(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Arts for Healing Environment(예술을 매개로 한 환경과 생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Art for Life Foundation(예술의 일상화/ 생활 속 예술 찾기), Age Exchange(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등이 있음

## (7) Healing Art Center: Smith Center for Healing and the Arts<sup>17)</sup>

### ▶ 기관 개요

-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Wellness)과 관련된 연구 및 창의성, 지역, 암환우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으로 1996년 설립되었음.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건강과 힐링을 추구하며 이와 관련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6년간 실시한 활동으로 예술가 레지던스 내에 암환우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예술적 표현의 기회를 암환우에게 제공함. 센터 거주 예술가는

16) <http://www.artheals.org/home.html>

17) <http://www.smithcenter.org/>

이러한 생활공간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펼치며 센터 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함

## (8). 해외 우수 사례의 시사점

### ▶ 건강에 대한 광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예술치유 적용 범위의 확대 가능성

환경, 경제, 사회, 정서적 요소 등이 개인의 건강한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예술치유의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 평화, 사회 정의, 고령화, 비만, 폭력성 등이 있다. 예술치유 적용 범위의 확대는 예술가들에게는 소통방법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술치유 적용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치유효과가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역시 넓게 인식하여야 한다.

### ▶ 예술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

해외의 경우 민간 및 공공에서 예술치유의 효과를 인식하고 예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예술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예술기관의 성격, 예술가들의 작품내용에 따라 자금의 출처가 다르며, 이를 통해 예술기관들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프로젝트의 장기화(평균적으로 3년 이상 지속)를 가능하고, 이러한 장기적 프로젝트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다시 말해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예술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지리적 범위 확대, 프로젝트 기간의 장기화가 필수조건으로 볼 수 있다.

## 4. 정책적 제언

### (1) 예술치료 관련 사업

현재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을 가리킨다. 지원금은 예산에서 책정되고 복지기금이나 경마기금 등의 기금을 활용할 때도 있다. 어느 경우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무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을 담당할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2007년부터는 바우처로 수혜자에게 직접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예술치료사들이 일을 하거나 앞으로도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 사업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 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 알코올중독상담센터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청소년 동반자(YC) 프로그램 /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아카데미 ‘두드림존’/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주여성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전용 쉼터 / 청소년 쉼터 / 청소년문화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Wee 센터 /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 통일부 : 하나원 / 초등학교 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 법무부 : 보호관찰소 / 소년원학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한편 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따로 두어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담당부서 없이 외부의 매개기관을 통해 복지현장과 연결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와 함께 1년 동안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는 기업과 공공, 그리고 복지 현장을 연결하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 혁신 프로그램을 연구,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 중 하나다.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는 오랜 시간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기업이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한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 진출이 어려웠던 1980~1990년대에는 교육, 장학 지원 등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족 해체와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공동체 내 소외 현상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이제 기업은 “사회 문제에 대해 물질, 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는 최근 기업들이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료에 관심을 보이면서 수혜대상에 대한 물질 지원뿐 아니라 심적 지원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는 “다양성을 근원으로 하는 문화예술을 사회공헌 기획에 도입함으로써 기업만의 차별성을 높인 것”이라고 보인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가 2011년 국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 운영해온 선두 기업들은 사업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했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직접 실행한 경험이 부족하여 영역 진입에 두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랐다. 반면 문화예술 활동은 고비용 및 대기업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 철학과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회공헌에 있어 문화예술 교육 및 치료가 어떤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부터 필요했다. 어느 기업이나 자사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기획을 필요로 하고 있어 기업과 현장을 이어주는 매개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업 컨설팅 지원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단이 바뀔 때마다 변천 과정을 겪는다. 바우처 사업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제 1세대에서는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에 따라 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영화’되었다. 그 다음의 제 3세대는 ‘공공정보나 투명성과 같은 간접적이며 소프트한 정책수단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급자 중심인 정부 위탁과 수요자 중심인 바우처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을 따르고 있다.

제 1세대의 경우처럼,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나 시장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게 되면 ‘시장의 혁신과 자율이 억제’되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산업의 자생력이 위축’되면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주무부처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투쟁을 통해 프로그램 및 조직을

확장하고자” 애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료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내포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제 2세대에서 드러나듯이 공모를 통해 사업체를 선정하거나 다른 통로로 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사업을 위탁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영리기관이 정부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더 높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의 생산과 확대를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함으로써 시장기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빈번하고 ‘지나친 이윤추구에 따른 상업화’로 본래의 목적을 변질시키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 때는 비영리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는 우선 고려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비영리조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이 풍부하지 못하고, 운용상의 불투명성’까지 자주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영리든 비영리든 위탁 기관은 공급권한을 보장해주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재원의존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정부와 유착관계가 되어’ 뜻하지 않은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sup>18)</sup> 낳을 수 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이 자유롭게 해당 제공기관을 탈퇴하여 다른 기관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면이 있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호소해도 잘 수용되지 않는 단점을 보인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도 부족해서 시장원리에 따른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도 하다. 설사 제공기관 간 경쟁 입찰이 이루어진다 해도 정부와 위탁기관 사이의 유착이나 입찰과정의 계약관리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 때문에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제 3자를 이용한 위탁 계약방식은 계약을 통해 생산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정보를 재원 제공자인 정부나 이용자인 시민이 제대로 측정하고 파악하지 못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독점 공급자 지원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등장한 것이 바우처(voucher)이다.

예술치료가 투입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이다. 미술치료사들은 그곳 바우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서 프리랜서 용역으로 사업 당 일을 맡아 한다. 주무부처에서 지정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요건은 바우처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고 종종 변경된다. 2012년 8월 5일부터 적용된 ‘보건복지부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중 예술치료사에 관련된 것은 아동, 청소년 분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의 경우

- 미술치료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혹은
- 미술치료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혹은
- 미술치료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인 자.

•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의 경우

- 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 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 (2) 예술치료 관련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지원사업은 넓은 의미로는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 특정 서비스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주무부처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직접 운영, ② 외부의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택하여 보조금 지급, ③ 서비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를 규정하여 특정 범위 내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 혹은 현물 지급. 반면 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사회공헌이라는 이름하에 외부의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택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 예술치료와 관련한 정책적 수요와 문제점은 그 중 정부의 주무부처 혹은 기업이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 미술치료 서비스가 생산·공급되도록 영리 혹은 비영리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이러한 종류의 지원사업에서 예술치료는 보통 1:1 개인치료가 아닌 집단치료의 형태로써 수행되고, 지원을 받은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 실행자인 예술치료 전문가를 직접 섭외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수혜자와 장소를 제공하는 현장기관이 따로 있어 지원기관—수행기관—현장기관의 3자 관계 속에 사업이 운영된다.

본 연구에서 관련 현황과 실태, 전문가 조사, 해외 우수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살펴본 예술치유 관련 정책적 수요는 다음과 같다.

### 1) 지원기관의 문제

수행기관의 운영 및 실행 능력을 확신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선정 단계에서 수행기관의 홍보 및 기획 능력에만 영향을 받아 위탁을 결정하기가 쉽다.

사업 제안서를 심사할 때 담당자들이 미술치료사업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사업비의 현실성을 평가하고 세부 예산 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술치료 지원사업의 예산을 항목별로 정해두고 변경 불가능하게 고정시켜두어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술치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자의 인건비가 강사로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불필요한 연구비나 운영비를 크게 정해두어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력으로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체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지원사업의 정체성과 필요성에 대해 계속 회의하게 되니 정책적인 추진력도 떨어진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지표 및 척도를 개발하여 수행기관과 독립되게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과 사후에 정확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성과 분석도 수행기관과 연고가 없는 통계처리 분석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사후 수행기관이 제출하는 질적 성과 분석 자료와 비교 연구해야 한다.

## (2) 수행기관의 문제

예술치료 전문 인력 확충에 가장 어려움이 크다. 현재 국내 교육 과정과 자격증 체계에 기준이 없어서 예술치료사 및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거의 모든 종사자들이 프리랜서 용역의 신분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 당 기간제로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나와 있는 햇수만으로 이력의 양과 질을 확인할 수가 없다. 특히 집단치료 교육을 철저히 받고 현장에 나오는 치료사들이 없는 실정이라 단기 집단치료의 형태로 진행되는 예술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가 힘들고, 각종 예술치료 지원사업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낮은 인건비로는 경력 많은 고급인재들을 모집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단순한 예술체험 시간과 구분되지 않는 양상으로 미술치료 지원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현장기관의 협업 상황을 감독하고, 실행자와 현장기관과의 마찰을 조율하며, 수혜자 관리 및 쌍방의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치료 관련 정부 사업의 관행적인 예산 내에서는 이러한 인력 마련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실행자인 예술치료사가

현장기관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반드시 현장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행자로 선발된 예술치료사들에게 단기 예술치료 사업에 대한 제반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보고 체계 및 운영상의 전략을 안내하며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실행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들을 읽고 진행 중인 회기에 대한 임상감독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감독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술치료 지원사업의 관행적인 예산 내에서는 이러한 인력 마련이 불가능하며 지원기관들은 임상감독에 대한 필요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에 미리 기획해 놓은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집단의 흐름이나 고유한 상황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따라서 수혜자 집단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미술치료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책임자나 전문가가 부재하여 실시간으로 대안이 마련되지도 못하고 있다. 실행자들로 구성된 운영회의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사업에 참여 중인 수혜자 집단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수시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예술치료 관련 사업의 성과 분석을 일반적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통계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실정이다. 정량적 분석은 지원기관이 담당해야 하고 수행기관은 다양한 질적 성과분석 자료를 마련하여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과분석 도구 및 절차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예술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나온 작품들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실행자인 예술치료사의 주관적인 보고로만 성과를 밝히고 있는 형편이다.

### (3) 현장기관의 문제

예술치료 지원사업의 성격과 사업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중에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될 공간을 제공하고 수혜자를 선정해 주는 일만 하고 있다. 예술치료 지원사업을 전담할 담당자가 현장기관 내 따로 없어 수행기관에서 파견된 예술치료 전문가와 일정 및 장소 사용과 관련하여 마찰이 빚어져도 의견을 조율하여 체계를 바로 잡을 대안이 없다.

예술치료사로부터 수혜자 각각에 대한 치료 진행상황을 자세히 보고 받지 못하여 현장기관에서 그들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불편한 사항들이 생겨도 호소할 곳이 정확히 없어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반 재료



들 및 프로그램 실행 전문가를 지원 받았다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써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형편이다.

### (3)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치료관련 전문가의 양성 과정과 자격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배경 및 수준이 다른 다양한 이름의 치료 실행자들이 예술치료 사업 현장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무부처에서 다각도로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펼치는 중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하기만 하면 민간자격증으로 인정받는 예술치료사 자격증은 몇 주짜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학교로부터 받는 자격과, 학위를 취득하고도 따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 협회와 학회의 자격증까지 존재하여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치료 전문가의 전문성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심을 받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자격 검증이 안 되는 치료사들이 다양한 예술치료 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니 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예술치료 관련 사업 중 특히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지원 방식은 현장기관과 수행기관이 각각 따로 있어 쌍방의 협조 관계 속에 사업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면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술치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도 자신들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베풀어진다는 생각만으로 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기관으로 채택되는 대부분의 곳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 진행을 전담하여 도울 담당자가 기관 내에 부재하는 중에 수행기관에서 파견되어 나온 예술치료사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연유로 협조가 어려워질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현장기관은 보통 지원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수행기관에서도 책임자가 따로 없거나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사업이 완료되고 만다.

반면 수행기관에서는 지원기관에서 정해놓고 있는 예산 편성 때문에 인건비 부족으로 전문 예술치료 전문가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미술치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교육하고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며 임상감독을 시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길이 없으니 수행기관은 어쩔 수 없이 실행자인 예술치료 전문가에게 사업의 성과를 전적으로 맡길 수 밖에 없다. 수혜자에 대한 사전연구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위한 인건비가 지급되지도 않아서 수행기관은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기획하지 못한다. 더욱이 집단과 현장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기회나 여력도 갖지

못하여 수혜자들의 실시간 상황이나 필요를 무시하고 사전에 기획된 프로그램을 무차별하게 진행하기도 한다. 집단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채로 사업에 투입된 예술치료 전문가들은 집단치료를 시행하는 중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에 아무런 조언이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애쓰다가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체험형 예술 워크숍이나 미술수업과 같은 프로그램 진행이 빈번하게 빚어진다. 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성을 꾀할 운영 전략이 부족하고, 사업의 성과를 도모하고 입증할 체계적인 방법론도 갖고 있지 않아서 결국 그러한 예술치료사들의 주관적인 보고 자료로만 사업의 성공을 기능하고 축하하기 쉽다.

지원기관은 사업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적절히 기획되었는지,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어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듣지 못한다. 지원기관 자체가 예술치료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와 척도를 개발하여 철저한 절차를 거쳐 사전 사후 척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그 일을 수행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 분석에 미흡함이나 실수가 많고 종종 왜곡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업성과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니 지원기관은 예술치료 사업에의 지원을 점차 꺼리게 되고, 지원금을 줄이거나 예산 편성을 더욱 통제하려고 들어 문제가 악순환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상황을 개선한다고 해서 곧장 전체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예술치료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예술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교육 및 자격증 체계를 맞춰갈 기준 체계를 관련 기관과 정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난립되어 있는 교육기관 및 자격증 발급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 예술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위해 관련 단체나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예술치료를 올바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 주무부처나 기업들이 지원금의 예산 편성을 현실적으로 다시 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녀야 하고, 예술치료 사업의 운영 전략 및 성과 증진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집단치료 전문가 양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며, 예술치유 및 치료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입증할 도구 및 절차도 연구·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현장에서 그것이 사용되고 다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5월 16일 보도자료: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력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11월 15일 보도자료: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줄인  
다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 2011.
- 박광동 <연구보고 2011-02: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사회서비  
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박종성 외 <기본연구 2010-16: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I]-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  
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변용찬 외. <정책보고서 2009-16: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9.
-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0.
-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8호. 보건복지부. 2012.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2.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보도자료: 2012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  
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제정(안)> 보건복지  
부. 2012년 5월 29일 고시 제2012-55호.
-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우수사례집: 문화예술과 함께 가  
는 기업 사회공헌의 미래>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2012.
- 서정아.조홍식. <연구보고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한국청소년연구원.  
2010.
- 서준호 외. <기본사업 2010-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010)>한국직업능  
력개발원. 2010.
- 오혜경 외. <장애아동 치료 이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09.
- 정광호. <바우처 분석: 이론과 현실> 법문사. 2010.
- 최성은, 최석준. <연구보고서 2007-22-6: 바우처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7.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200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ACES-1021-R003: 예술치유 활성화 지원 평가보고서>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 2. 학위논문

- 권오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통해서 본 미술치료지원 실태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정희 <미술치료 현황 및 아동미술치료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와 만족도>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3.
- 박경아 <미술치료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인들의 인식도 조사연구 -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신원일 <예술치료사의 재교육 현황 및 욕구조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안성원 <미술학사 취득자의 미술치료 석사과정 경험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장윤화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미술치료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장현정. <인천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미술치료에 대한 인식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